

02.
기하 + 0
시각
3



홍세진

이달의 표지 작가



홍세진은 인천가톨릭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를 거쳐 현재 동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9년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2020년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삼각형의 구도>(스페이스빔, 2019), <멀티탭: 감각을 연결하기>(JCC아트센터, 2019), <무무(MUMU)>(PLATFORM-L, 2019), <디지털과 유사한>(공간형, 2019) 등 다수의 공모전과 그룹전에 참가했고, <감각의 오류>(레스빠스71, 2019), <선명한 소란>(신한갤러리 역삼, 2019)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표지 작품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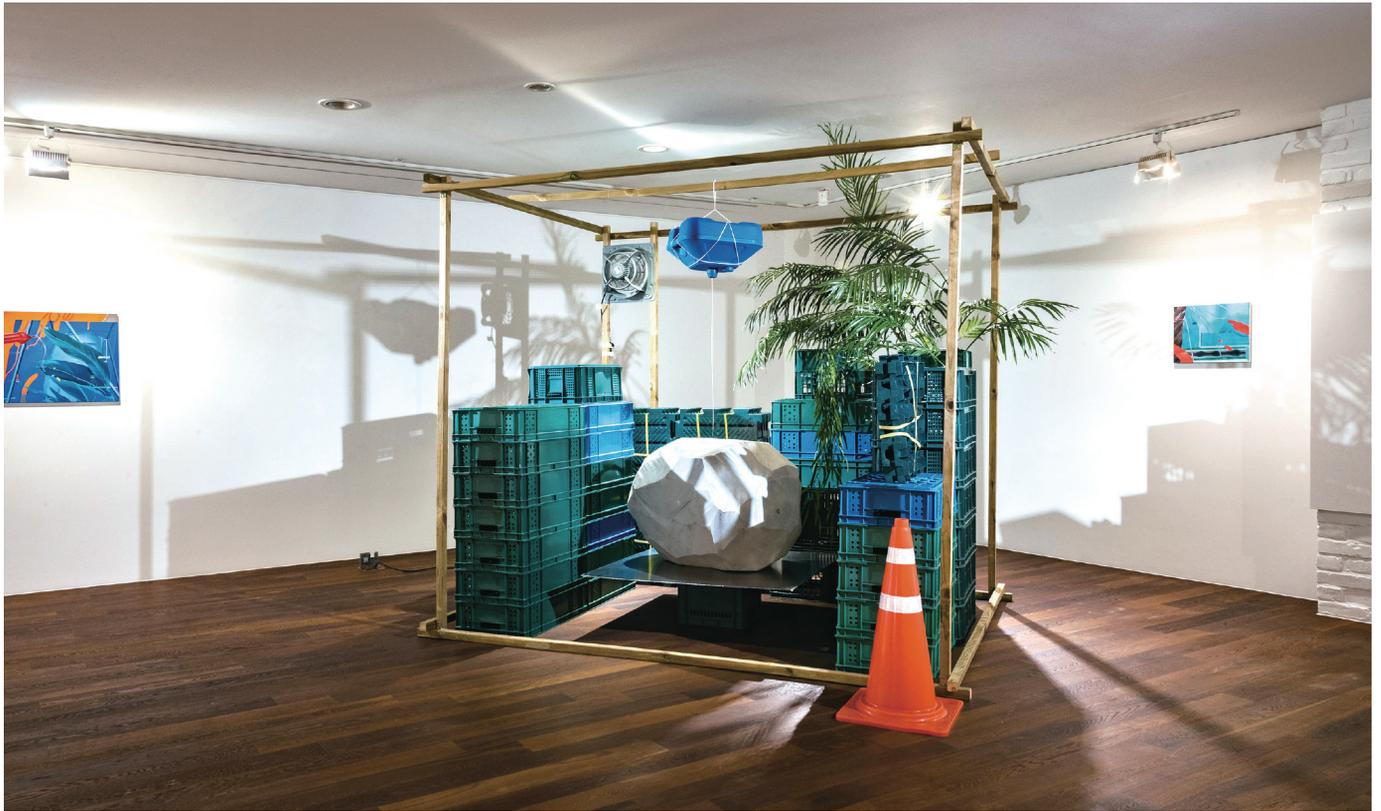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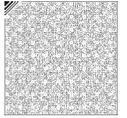
캔버스에 유채 | 182×227cm | 2019



나의 청력은 '인공와우'라고 하는 보철 기계장치를 이용해 보완된다. 이른바 정상 범주라 칭하는 감각의 지점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회화, 설치 등으로 작업하고 있다. 언뜻 평범한 풍경화로 보이지만 작품 안의 비재현적 요소들은 감각하는 세계의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지점을 상상할 수 있도록 시도된 것이다. 작품 안의 공간, 사물 등과 같은 인공물과 세포, 선, 도형, 식물과 같은 자연물의 시각적 편집을 통해 감각적 경험의 온전성으로부터 비켜서 있는 폰크툼(punctum)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을 통해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비언어'가 주는 발화 지점을 탐구하고 싶었다.

<바늘의 끝>(2019)은 3D프린터의 내부를 상상하고 이를 일상적 물건들로 구현해 낸 설치 작품이다. 나의 청각을 보완하는 인공 기관을 본뜨는 과정에 3D프린터를 일부 재현한 것으로, 작품 가운데에는 완결되지 않은 하얀 '무언가'가 놓여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물체는 가능성을 내포하며 결과의 뉘앙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작품이 형성하는 공간은 모든 종류의 언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불투명성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해 감각을 지각하는 신체 언어(정형적이든 비정형적이든)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 내가 감각해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바늘의 끝>
혼합재료, 가변설치 | 240×190×240cm | 2019



<앞사귀와 조각>
캔버스에 유채 | 130×162cm | 2019



<바늘의 끝> 부분컷
혼합재료, 가변설치 | 240×190×240cm | 2019

CONTENTS

2020 03 VOL. 157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각원 편집위원 김태희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magazine.sfac.or.kr
발행일 2020년 2월 28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홍세진

테마 토크

제작극장의 2020년 시즌 프로그램

06 칼럼

2020년 시즌 프로그램의 경향과 창작 지원

08 리포트

3개 제작극장의 2020년 시즌 프로그램 미리 보기

14 인터뷰

인큐베이팅 시스템 선정작 창작자 인터뷰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극작가 배삼식

24 작가의 방

김선영 아트맵 대표·최재훈 영화평론가
오유경 연출가·미나유 안무가



28 서울 할나

30 진실 혹은 대답

제3차 '2020 연극의 해'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이슈 & 토픽

36 쟁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연예술계 비상

38 화제

남산예술센터의 일본, 중국 희곡 낭독공연과
동아시아 희곡

공간, 공감

40 공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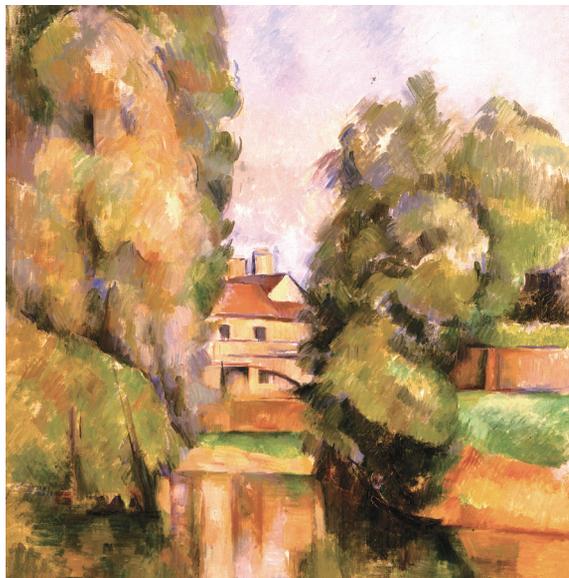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과 <적벽>

42 공감 2

전시 <CONNECT, BTS>와
<모네에서 세잔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전>

44 공감 3

책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과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¹⁶

그리움과 추억으로 다리를 놓다
-시인, 고정희에게 가는 길-

48 김송희의 썰(說)

유산슬·유르페우스, 카피추, 펄수의 존재감

50 류태형의 음악 정원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이와이순지 감독의 <립반윙클의 신부>

WEBZINE+

56 웹진 [비유]

세대와 톨레랑스

58 웹진 [연극in]

<움직임의 시>아쿠카도고 세미나·워크숍

60 웹진 [춤:in]

뭉 | 손민선 & 조형준

62 3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제작극장의 2020년 시즌 프로그램

2020년, 제작극장의 시즌 라인업이 발표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에서부터 신진 예술가들의 패기가 담긴 실험적 작품까지, 2020년에도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3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제작극장의 역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또한 남산예술센터·두산아트센터·국립극단의 2020년 시즌 프로그램 주요 라인업과 각 극장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돼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젊은 작가와 연출가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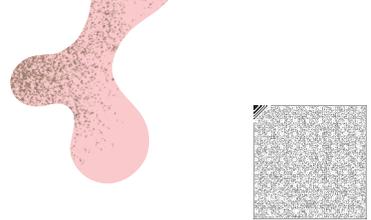
창작극 개발의 산실, 제작극장

2020년 시즌 프로그램의 경향과 창작 지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공연계의 굵직한 극장에서는 새해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남산예술센터·두산아트센터·국립극단 등 서울의 대표적인 제작극장에서도 어김없이 2020년을 다채롭게 채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월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소간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여러 해 다져온 내공이 곧 힘을 발휘하길 기대하는 바다.





창작극 개발을 극장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제작극장들이 있다. 연극을 올리는 극장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두산아트센터’와 국공립극장인 ‘남산예술센터’ ‘국립극단’이 대표적이다. 이들 극장은 각기 추구하는 미션이 있다. 두산아트센터는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남산예술센터는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극장, 시대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동시대 공연장,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극장’을, 국립극단은 ‘창작 작품 개발과 국립극단의 예술적 성과 및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한 연극을 제작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미션이자 비전으로 언급하고 있다.

시즌 프로그램의 다양한 경향

올해 남산예술센터는 공동제작 공모를 통한 선정작부터 해외 초청작까지 다양한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역사 의식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1930~50년대 만주, 1980년대 한국, 기독교 역사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흥미롭다. 반면 두산아트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은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의 눈을 통해 동시대의 사회 이슈를 다룬다. 언론의 역할, 여성문제, 사회구조의 모순 등의 이슈를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내고 사회학·인문학적 인성찰이 돋보이는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창단 7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극단은 이를 기념하는 작품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7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선보이는 극과 그동안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마련했다. 국립극단이 70주년 기념 표어로 내건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단 70’은 1년 내내 연극을 만날 수 있는 곳,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국립극단을 표방하며 많은 국민의 삶에 연극을 심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개성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지향점이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극장은 공통적으로 창작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산아트센터는 연출가와 작가를 발굴하는 ‘DAC(Doosan Art Center) Artist’를 운영한다. 세 명

을 선정해서 3년간 두 편의 신작을 발표하고 해외 연수를 1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DAC Artist에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작품 발표뿐만 아니라 워크숍, 리딩, 쇼케이스를 미리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40세 미만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두산아트랩은 훗날 DAC Artist를 선정하는 리서치 풀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남산예술센터에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초고를 부탁해’와 ‘서치라이트(Searchwright)’가 있다. 초고를 부탁해는 2012년에 처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투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스템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해 온 프로그램이다.

쇼케이스, 낭독공연, 공개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 서치라이트는 다양한 형식의 공연예술에 문을 열고 있어, 연극뿐만이 아닌 타 장르에서 출발한 공연예술도 볼 수 있다. 젊은 창작자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미래 세대의 관심사, 이들이 추구하는 창작 방법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각자의 작업이 세상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척도로, 작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셈이다. 초고를 부탁해를 거치고 2018년에 서치라이트로 올라온 〈7번국도〉(작 배해률, 연출 구자혜)의 경우, 관객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이후 1년간 수정 과정을 거쳐 2019년 남산예술센터 시즌 공연에 공모해 선정되었다. 2020년 시즌 공연으로 올라가는 〈왕서개 이야기〉(작 김도영, 연출 이준우)도 같은 단계를 거쳤다.

국립극단은 현재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이전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극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 시즌의 신진 예술가들의 작업, 또는 기성 예술가들의 새로운 도전을 목격하며, 짧게는 해당 연도에 주목해야 하는 창작자들, 길게는 향후 몇 년간 무대에서 보게 될 경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리가 기대된다. 지난 1월 말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프로그램 일정에 다소간의 변동이 생기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시점을 기다리며, 제작극장들의 2020년 시즌 프로그램을 응원한다.

글 전강희_공연평론가, 드라마투르기





이 시대의 극장, 미래를 위한 극장

3개 제작극장의 2020년 시즌 프로그램 미리 보기

남산예술센터·두산아트센터·국립극단의 2020년 시즌 프로그램에는 어떤 작품이 포함돼 있을까. 각 극장의 올해 대표작을 살펴보고, '극장의 미래'인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과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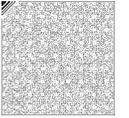
동시대 시선을 담은 작품과 인큐베이팅으로 탄생한 작품 남산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5월의 광주를 다룬 작품에서부터,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무대에 처음 서는 젊은 창작자의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작품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광주민중화운동 40주년인 2020년 5월에는, 뜻깊게 기획된 작품 두 편이 연달아 무대에 오른다. 우선, 지난해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휴먼 푸가>(원작 한강, 연출 배요섭)가 5월 13~24일에, <더 보이 이즈 커밍(The boy is coming)>(원작 한강, 연출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이 5월 29~31일에 관객을 찾아간다. 두 작품은 모두 한강 작가의 장

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토대로 제작됐다. 고통의 역사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그려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다.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엔 젊은 창작자의 활약도 눈에 띈다. <왕서개 이야기>(4월 15~26일),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6월 24일~7월 5일),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9월 2~13일)가 그렇다. 특히 2020년 시즌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왕서개 이야기>는 남산예술센터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거친 작품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3
서치라이트 <왕서개 이야기>
2
연극 <휴먼 푸가> (2019년 공연)
4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포스터

NAMSAN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ARTS CENTER
2020 SEASON
PROGRAM

03.03.-03.13.
시차라이트
Searchwright
04.15.-04.26.
왕서개 이야기
(왕서개 이야기)
05.13.-05.24.
휴먼 푸가
휴먼 푸가
05.29.-05.31.
The boy is coming
(남산예술센터)
06.24.-07.05.
연극 <휴먼 푸가>
(2019년 공연)
09.02.-09.13.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포스터

남산예술센터는 2010년 <신진연출가 기획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했다. 특히 현재는 상시 투고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와 과정 공유 프로그램 '서치라이트 (Searchwright)'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예술적 실험과 창작 활동을 돕고 있다.

초고를 부탁해는 창작 초연 중심 제작극장인 남산예술센터가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극작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완성한 장막 희곡이 있다면 상시 투고가 가능하다. 투고된 모든 초고는

전문 극작가의 1차 검토와 피드백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통과된 작품은 2차 심층 멘토링 과정을 갖는다.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극작가들의 피드백 이후 원고는 다시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된다.

초고를 부탁하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동시에, 작가 스스로 희곡의 장르와 양식에 대해 고민하고 더 깊이 있는 극작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작 희곡의 인적자원 기반을 넓히고, 가능성 있는 신작 희곡을 연극계 전반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창작 희곡의 제작 경로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초고를 부탁하는 남산예술센터의 작품 기획 발굴이나 라인업 강화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희곡 및 작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희곡 공모나 워크숍과는 변별점을 갖는다.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라인업 중에는 과정 공유 프로그램 서치라이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치라이트는 남산예술센터가 2017년부터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은 희곡, 창작자의 메모장 속에 잠들어 있는 미완의 텍스트, 극단의 회의 테이블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디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낱장의 장면 등 창작 전 단계로 제작 과정에 있는 모든 미완의 콘텐츠를 미리 공유해 보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작품을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으며, 극장은 한정된 소재와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관객은 작품의 제작 과정에 참여해 작품 발전에 직접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기획자는 새로운 작품과 창작자를 만나 주도적으로 작품을 발굴할 수 있다. 남산예술센터의 2020년 라인업에 시즌 프로그램 외에도 과정 공유 프로그램 서치라이트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남산예술센터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쏟는 관심과 지원이 어느 정도 인지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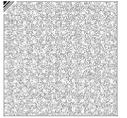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서 한 가지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초고를 부탁해와 서치라이트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초고를 부탁해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서치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낭독공연 제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후 단계별로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남산예술센터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장점이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거쳐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신진 작가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 *초고를 부탁해_상시 희곡 투고 시스템, 남산예술센터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
- *서치라이트(Searchwright)_과정 공유 프로그램. 낭독공연, 짧은 워크숍, 30분 이내의 쇼케이스, 주제 리서치를 위한 전문가 Q&A, 공개토론, 콘퍼런스, 프레젠테이션, 피칭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중의 콘텐츠 소개
- *연극 <왕서개 이야기>는 초고를 부탁해와 서치라이트 시스템을 경험한 작품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일정	공연명	작가 및 연출	협력극단	구분
4. 15~26	왕서개 이야기	작 김도영 연출 이준우	극단 배다	
5. 13~24	휴먼 푸가	원작 한강 연출 배요섭	공연창작집단 뛰다	
5. 29~31	The boy is coming (Nadchodzi chłopiec)	원작 한강 연출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	폴란드 스타리 국립극장	시즌 프로그램
6. 24~7. 5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	작·연출 김지나	이언시 스튜디오	
9. 2~13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공동창작 연출 임성현	콩짜 프로젝트	
7월 예정	서치라이트(Searchwright)		*공모 통해 선정	공모 프로그램



젊은 작가의 신작으로 시작하는 2020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는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FOOD)'와 연결된 세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며, 하반기에는 DAC(Doosan Art Center) Artist 이승희와 윤성호의 신작과 2016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구자혜의 신작을 나란히 선보인다.

두산아트센터에서 무엇보다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실, '두산아트랩 2020'이다. 지난 1월 30일에 시작했으며 남은 일정을 추후 공지할 예정인 두산아트랩 2020은 공연 분야의 젊은 창작자 6팀의 새로운 실험을 선보인다.

서정완의 연극 <앵커>는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모티프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언론 권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창작집단 글과무대는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4년 만에 이혼하고 각자 연애하고 있는 희수와 남일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연주의 연극 <양질의 단백질>은 자신들이 완벽하고 안전한 '집'에 살고 있다고 믿는 여성 쌍둥이 머루와 오디의 이야기다.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여성'의 삶과 모습의 진실성에 대해 고민한다.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안정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창작집단 푸른수염의 연극 <뜻밖의 여자>는 '여성' 예술가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추태영의 연극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르완다 대학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과정을 취재한 실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신진호가 연출한 연극 <Ciphers-암호문>은 영국 극작가 던 킹(Dawn King)의 작품으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이중성, 부조리함을 다룬다.

두산아트랩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두산아트센터만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 두산아트랩은 사전 신청한 관객에게 신진 예술가들의 극을 무료로 선보인다. 이는 신진 작가들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됨은 물론 관객에게 새로운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
두산아트랩 2020
포스터
2
<앵커>
쇼케이스 장면



*두산아트랩 만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 발표 장소와 무대기술, 부대장비, 연습실과 제작비 등을 지원. 매년 정기 공모를 진행하며 서류 심사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작품 선정하며 팀으로 공모 가능

*두산아트랩 2018에서 주목받은 연출가 신진호는 두산아트랩 2020에서 <Ciphers-암호문>으로 다시금 관객을 찾음



2020 두산아트센터 프로그램

일정	공연명	작가 및 연출	구분
1. 30~2. 1	앵커	작·연출 서정완	두산아트랩
2. 6~8	양질의 단백질	작·연출 김연주	
2. 13~15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작 글과무대(황정은·진주·최보영)	
2. 20~22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작 추태영·백지영 연출 추태영	
3. 14~29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작·연출 윤미현	공동기획
4. 7~5. 2	1인용 식탁	원작 윤고은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FOOD)
5. 12~6. 6	궁극의 맛	원작 쓰치야마 시게루 각색 윤성호 연출 신유청	
6. 16~7. 4	식사(食事)	연출 윤한솔	공동기획
7. 25~8. 1	문 밖에서	작·연출 이양구	
8. 8~23	마른 대지	작 루비 레슈피젤 연출 윤혜숙	
9. 15~26	판소리 이승희 신작		DAC Artist
10. 13~31	연극 윤성호 신작		
11. 10~28	구자혜 신작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12. 5~26	크리스천스	작 루카스 네이스 연출 민새롬	공동기획
미정	뜻밖의 여자	작·연출 안정민	두산아트랩
	Ciphers-암호문	원작 던킹 연출 신진호	

70주년 기념하는 프로그램 포진 국립극단

국립극단은 창단 7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70주년 기념 신작인 배삼식 작가의 <화전가>는 이성열 예술감독이 연출했다. 전쟁 직전인 1950년, 위태로운 시기를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한 채 살아가는 여인들에 관한 작품이다. 70주년을 준비하며 진행한 관객 설문조사 '국립극단에서 가장 보고 싶은 연극'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대표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원작 기군상, 각색·연출 고선웅)과 정진세 각색, 부새롬 연출로 새롭게 태어날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 또한 준비돼 있다. 국립극단 역사에서 세 명의 연출가에 의해 공연된 레퍼토리 <파우스트>(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는 조광화 연출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다. 같은 시기에 함께 출범한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은 70주년을 자축하며 과거 남산 국립극장 시절에 큰 사랑을 받은 <만선>(작 천승세, 연출 심재찬)을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 해외 여러 극단과의 협업도 눈에 띄는데, '연출의 관-해외연출가전'의 일환으로 벨기에 연출가 셀마 알투이가 맨부커상 수상작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선보인다. 앞서 소개한 제작극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립극단도 인큐베이팅 시스템 '희곡우체통'을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의 작품을 공개한다. 2020년 12월 무대에 오르는 <사랑의 변주곡(가제)>은 희곡우체통에 선발된



1
 <화전가> 연습 사진
 2
 희곡우체통
 모집 포스터



작품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유혜울 작가의 희곡 데뷔작이다. 김수영 시인의 언어를 빌려 모든 세대에 대해 깊게 사유한다.

현재 희곡우체통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극단은 그 외에도 독일에서 활동하며 만 30세에 베를린연극제 작품상을 수상한 작가 박본의 신작과 한국 쿼어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박상영의 소설《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각색한 낭독공연 등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서 만나볼 기회를 늘려갈 예정이다.

글 권민경_객원 기자, 시인 자료 기관별 보도자료, 누리집

- *희곡우체통_2018년 3월부터 운영된 창작희곡 온라인 상시 투고 제도
- *희곡우체통은 창작극 발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낭독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정
- *신작 개발 쇼케이스_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예술가들의 작품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

2020 국립극단 공연

일정	공연명	주요 창작진	구분
4. 3~5. 3	파우스트	원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각색·연출 조광화	명동예술극장
4. 16~5. 2	만선	작 천승세 연출 심재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5. 6~6. 7	채식주의자	원작 한강 각색·연출 셀마 알루이	소극장 판
5. 8~23	국립예술단체 초청공연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명동예술극장
5. 22~6. 14	영지	작 허선헤 연출 김미란	백성희장민호극장
5. 28~30	바나삼촌	작 안톤 체호프 연출 리마스 투미나스 제작 박탄고프극장(러시아)	명동예술극장
6. 2~6	말괄량이 길들이기	작 W. 셰익스피어 연출 저스틴 오디베르 제작 로열셰익스피어극단(영국)	명동예술극장
6. 18~7. 12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연출 남인우	소극장 판
6. 19~7. 26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원작 기군상 번역 오수경 각색·연출 고선웅	명동예술극장
9. 2~27	스웨트(가제)	작 린 노티지 연출 안경모	명동예술극장
9. 4~26	동양극장 2020	원작 김기림·이서구 연출 윤시중	백성희장민호극장
10. 14~11. 15	스카펫	원작 몰리에르 각색·연출 임도완	명동예술극장
10. 16~18	트루유(가제)	크리스 콘텍·크리스티안 퀴(봄 Bo:m 공동기획)	백성희장민호극장
10. 30~11. 22	상호(가제)	미정	백성희장민호극장
11. 27~12. 27	햄릿	원작 W. 셰익스피어 각색 정진새 연출 부새롬	명동예술극장
12. 3~20	사랑의 변주곡(가제)	작 유혜울 연출 이은준	백성희장민호극장
미정	화전가	작 배삼식 연출 이성열	명동예술극장



무대를 만드는 젊은 목소리

인큐베이팅 시스템 선정작 창작자 인터뷰

우리가 무대에서 접하는 연극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들의 노력과 더불어 마음 놓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한다. 남산예술센터·두산아트센터·국립극단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탄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 젊은 예술가들과 이야기 나누었다.

Q 남산예술센터와 함께 작업한 공연을 소개해 주세요.

A 이번에 남산예술센터와 함께 준비 중인 공연은 <왕서개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2020 시즌프로그램 공동제작 공모를 통해 올리게 된 작품입니다. 1932년에 일본군에 의해 아내와 자식을 잃은 왕서개라는 남자가 21년이 지나서 그 가해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Q 남산예술센터의 창작자 인큐베이팅 시스템(초고를 부탁해·서치라이트 등)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남산예술센터의 단계별 제작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바로 <왕서개 이야기>입니다. 상시 투고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부터 서치라이트를 거쳐 시즌프로그램으로 올라간 것인데, 이를 통해 작품이 단단해졌습니다. 대본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낭독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무대화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무대화 이전에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에게 의미 있는 시스템입니다.

Q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신진 작가와 연출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창작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 밖에 활동에 도움이 된 워크숍, 프로그램, 교육 등이 있었나요?

A 2017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를 통해 공연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창작자가 원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쇼케이스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연까지 올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김도영 작가와 함께, 과거 중국의 무순전범관리소에서 일본 전쟁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화 정책 프로그램을 다룬 <무순 6년>이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전쟁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바탕으로 연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재 남산예술센터에서 작업 중인 <왕서개 이야기>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입니다. 한국 예술창작아카데미를 통한 충분한 연구 조사와 멘토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있었기에 지금의 <왕서개 이야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산예술센터 '초고를 부탁해' '서치라이트' 선정작 <왕서개 이야기> 연출가 이준우



사실주의 기법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출가. 2011년에 국립극단에서 조연출 인턴으로 연극을 시작했고, 2013년에 <버스 기다리는 남자>로 연출 데뷔를 했다. <수정의 밤> <포트폴리오> <아름과 루시> <무순 6년> <박씨전> <웃> 등 다수의 연출작이 있다.



Q 그동안 연출가로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A 어떤 일도 쉬운 건 없지만, 연극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작업에 대해 의심하고, 재미 없다는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멘토인 강량원 선생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미 없다는 말이 지면 안 된다고, 작업을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고.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Q 연출가로 극장과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창작자들과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자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간극을 좁힐 기회를 자주 가진다면, 그 시간이 쌓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A <왕서개 이야기>가 끝나면, 우란문화재단에서 제작하는 <붉은 낙엽>이라는 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을 무대에 올라갑니다.

남산예술센터 '초고를 부탁해' '서치라이트' 선정작 <왕서개 이야기> 작가 김도영



1988년생 극작가. 2013년 단막극 <심야정거장>으로 데뷔해 <로드 시어터> <뭇> <리비도 3부작>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무순 6년> <아름과 루시> 등의 작품 활동을 해왔다. 취미는 책 읽기 및 상상하기이며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다.

Q 남산예술센터와 함께 작업한 공연을 소개해 주세요.

A 남산예술센터와의 작업은 처음입니다. 앞서 초고를 부탁해와 서치라이트를 통해 <왕서개 이야기>를 발전시켰고, 비로소 공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53년을 배경으로 한 <왕서개 이야기>는 만주

의 사냥꾼 왕서개가 21년 전 다섯 마리의 말을 탔던 일본인을 찾아가는 복수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왕서개는 가족사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로, 그의 여정에 1930년대에서 1950년에 이르는 세계사적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Q 남산예술센터의 창작자 인큐베이팅 시스템(초고를 부탁해·서치라이트 등)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작품의 발전 혹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고를 부탁해의 경우 작품이 여러 동반자를 만나기 바로 전 단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치라이트는 공연으로 만들기 전 관객을 통해 극의 완성도나 성공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창작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중심 요소가 아닐까요.

Q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신진 작가와 연출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그동안 정신없이 극을 써왔습니다. 그 탓에 뭐든지 빨리 해내야 한다는 어떤 조급함과 선부름이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참여하면서부터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차분하게 글을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그 밖에 활동에 도움이 된 워크숍·프로그램·교육 등이 있나요?

A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제가 참여한 첫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희곡을 대하는 관점, 생각, 깊이, 속도 등을 스스로 관찰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 도움이 됐습니다.

Q 극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A 희곡이 곧 작가의 세계이며, 작가는 작품에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더 멀리 봐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햇대에 앉은 듯 오락가락하곤 합니다. 그래도 무엇이든 끝내 극복할 수 있다는,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Q 젊은 작가로서 극장과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너무 광범위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것 외에 큰 바램은 없습니다.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 2020' 선정작 <Ciphers-암호문> 연출가 신진호



2017년 <이해는 무슨>으로 데뷔.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 2018' <종이인간>,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 <상떠러지의 착각>, 연극 <험릿연습> 등을 연출했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예술가 연극 연출 분야에 선정됐다.

Q 두산아트센터와 함께 작업한 공연을 소개해 주세요.

A 첫 작업은 '두산아트랩 2018'의 <종이인간>입니다. 연극 <종이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 가상으로 형성된 다양한 시스템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이번 두산아트랩 2020 선정작은 연극 <Ciphers-암호문>입니다. 이 연극은 주목받는 영국 극작가 던 킹(Dawn King)의 작품으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Q 두산아트센터의 인큐베이팅 시스템(두산아트랩)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두산아트랩 2018을 통해 창작자로 처음 소개됐고, 이후 많은 실험적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두산아트랩 2020에 참여하게 돼, 굉장히 뜻깊게 여깁니다. 두산아트랩은 작품을 실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 장소와 무대기술, 부대장비, 연습실,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고요. 창작자로서 좋은 극장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실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신진 작가와 연출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과정 중심의 연극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진 작가와 연출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입니다. <Ciphers-암호문> 역시 완벽한 제작 공연 형태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작품이 가진 성격이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작품이 동시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Q 그 밖에 활동에 도움이 된 워크숍, 프로그램, 교육 등이 있나요?

A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연극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여러 기관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연극센터의 'PLAY-UP 아카데미'에서 강량원 선생님께 연출의 기본 구성을 배웠고, 이후 국립극단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에 선정돼 여러 형태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예술가' 연극 연출 분야 연구생으로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와 연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색깔을 갖춰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Q 젊은 연출가로서 극장과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급하게 공연을 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극을 위한 것인지 사업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좀 더 확실히 검토하고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작품이 설익은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앞으로의 지원 사업은 완벽한 공연 형태를 갖추기보다 과정을 좀 더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자체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방식의 지원 사업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A 저의 멘토 선생님이신 전인철 연출님께서, 제 스펙트럼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창작자가 되겠다 미리 단정 짓지 말고 여러 작업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실험적인 작업에 다양하게 참여하며 경험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2020 청소년극 시리즈 연극 <환한밤>에서 연출과 각색을 맡게 됐는데, 이를 통해 저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자세히 바라보려 합니다. 또 극단 비밀기지의 연출가로서 단원들과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그려갈지 깊이 고민하며 재밌게 연극하겠습니다.



국립극단 '희곡우체통' 선정작
<사랑의 변주곡> 작가 유혜을



그림책과 희곡을 쓰고 있다. 오래 생각하고 천천히 쓰는 사람이다. 2017년에 첫 번째 그림책 <사막의 왕>을 출간했으며 올해 12월 <사랑의 변주곡>으로 첫 연극 공연을 올린다.

Q 국립극단과 함께 작업한 공연을 소개해 주세요.

A <사랑의 변주곡>은 희곡우체통을 통해 2020년 제작공연으로 선정돼 올해 12월에 공연될 예정입니다. 저는 인물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고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이야기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김수영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의 시는 언어가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질문하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서 있는 동안,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동안, 같은 질문을 사유하는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극장에서 김수영의 시를 다시 읽고, 듣고자 합니다.

Q 국립극단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학교 극회 활동을 한 적도 없기에, 연극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작품 개발 프로그램 중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 곳이 있어 저처럼 늦게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희곡우체통은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투고된 모든 장막극 대본을 익명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 같은 신인 극작가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희곡우체통을 통해 처음으로 제가 쓴 대사들을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관객의 반응을 봤습니다. 희곡을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고 부족한 점이 그대로 드러나 부끄럽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진 작가에겐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첫 시작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방향과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피드백과 조언을 들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써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제 길을 가게 해준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힘을 내서 쓸 수 있습니다.

Q 그밖에 활동에 도움이 된 워크숍, 프로그램, 교육 등이 있나요?

A 오랫동안 혼자 글을 쓰다가 2018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스토리텔링과 극작' 수업을 3개월 들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무료 수업입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재미있었고,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 격려해 주는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극작가로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A <사랑의 변주곡>은 두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한 마음으로 빈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주고받는 대화가 '들렸고', 짧은 대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대화가 멈춘 사이, 둘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까? 아주 느리고, 힘겹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쓴 이야기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줄까요? 답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일만이 제게 남았습니다. 내가, 왜, 꼭, 희곡을 쓰려고 할까? 앞으로는 쓰는 일뿐만 아니라 무대를 준비하고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저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질 것입니다. 확신에 찬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빈 화면을 보다가 어떤 목소리가 희미하게라도 들리면 저는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A 올해는 <사랑의 변주곡> 대본에서 충분히 말하지 않은 것을 찾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 외에는 아동 뮤지컬 극본을 작곡가와 함께 수정하고 음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낮에 꾸는 짧은 꿈같은 공연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리 권민경_객원기자. 시인

격렬한 갈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시작되는 글쓰기

극작가 배삼식

우리는 역사를 굽직한 사건 중심으로 배우고 기억한다.
1945년 광복과 1950년 6·25 전쟁이 육중하게 자리한
20세기 연대표에서 나머지 날들은 무의미한 것처럼.
배삼식 작가는 그런 무의미해 보일 법한 역사의 '행간'을
무대 위에 그려낸다. 광복 후 귀향을 꿈꾸던 이들의
기다림의 시간, 참사 뒤 남은 사람들의 삶, 변화의 주변부 풍경...
국립극단 70주년 기념작인 신작 <화전가>는
1950년 4월 어느 여인네들의 일상을 그려낸다.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삶을 계속 꾸러가는 이들의 질긴 풍경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 될지 모른다고 그는 사려 깊게 말한다.

※2020년 2월 28일~3월 22일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예정이던
배삼식 작가의 신작 <화전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습니다.
본 인터뷰는 공연 일정이 변경되기 전인 2월 18일에 진행됐습니다.



화전(花煎)은 하얀 찹쌀 반죽을 동글납작하게 빚고 그 위에 분홍 진달래꽃을 올려 기름에 지져내는 떡이다. 이 화려하고 고운 빛깔의 음식은, 화전놀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봄을 맞아 아낙네들이 산과 들로 놀이를 나가 만들어 먹던 것이다. 이 봄놀이를 읊은 규방 가사도 있다. 경상도 안동에서 성행했다는 <화전가(花煎歌)>.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공연으로 오르는 배삼식 작가의 신작도 규방 가사 제목 그대로 <화전가(花煎歌)>다. 화전놀이가 여자들의 나들이인 것처럼 이 연극에는 여자들만 나온다. (단 한 명의 남자도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 연극은 1950년 4월, 안동 반가(班家) 김씨의 집과 마을 어귀를 배경으로 오후부터 밤을 지나 다음 날 아침까지 여인들이 벌이는 봄밤 놀이다. 봄별 찬란한 산과 들은 아니지만 화전놀이가 아닐 수 없다.

1950년 4월 봄밤 화전놀이

기념공연이라고 날짜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립극단 창단 공연이 1950년 4월에 있었다. 6·25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화전가>에는 6·25 전쟁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 김씨의 환갑을 하루 앞둔 오후, 시집간 금실과 박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봉아가 집에 내려온다. 김씨는 며느리들인 장림댁·영림댁, 시집갔다 돌아온 시누이 권씨, 집안 살림을 돌보고 있는 독골할매와 그녀의 양녀 홍다리댁과 이 집에 살고 있다. 김씨의 첫째 아들은 식민지의 모진 세월을 겪다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은 해방된 나라에서 간혀 있다. 세상을 구하려 집을 떠난 남편도 소식이 끊겼다. 남

자들은 세상일로 분주하거나, 세상과 불화하다 세상을 일찍 떠났고 혹은 간혀 있다.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남아 있는 여인들이다.”

<화전가>가 그리고 있는 시간은 배삼식의 전작 <라오지양후 최막심>에서 식민지 시절 만주로 떠났던 사람들이 <1945>에서 광복을 맞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 현대 희곡의 대표작 중 하나인 차범석의 <산불>이 그리고 있는 6·25 전쟁 직전의 시간이다. <산불> 역시 전쟁으로 남자들이 모두 떠난 마을에 남은 여자들이 참혹한 전쟁을 살아내는 이야기다. <경숙이, 경숙 아버지>(박근형 작)에서도 아버지는 혼자 장구 돌리매고 피난을 떠나고 어매와 경숙이 두 모녀가 남아 전쟁 중 집을 지킨다. 광복 직후의 혼란을 서울 도시 빈민의 이야기로 그리고 있는 <혈맥>(김영수 작)과 잇닿은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참혹한 시절을 그리고 있는 여타의 작품들과 <화전가>는 다르다. <화전가>는 요동치는 시절을 그리지 않는다. 그저 어제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단 하루의 봄밤 여자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반짝이는 패물을 걸치고 고운 갑사 한복을 차려입고 놀이를 벌인다. 연극은 봄밤의 놀이를 까무룩 졸다 깨듯 장면을 닫고 열면서 이어간다. 그럼에도 희곡을 읽는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다. “1950년 4월이라는 시간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있어요. 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 안의 여인들은 그들의 삶을 끝내 짓밟는 사건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아름다운 순간을 붙들고 있죠.” 그 때문일까. 커피의 씹쌀한 맛, 설탕의 단맛, 막내 봉아가 준비한 반짝거리는 유리 브로치, 큰며느리 장림댁의 사각거리는 갑사 치마 등등 이들의 봄밤 놀이에 등장하는 소소한 순간들이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깝다. “수컷들이 쫓던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때, 세계를 충만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화전가>는 내내 여인들의 수다로 전개돼요. 방향도 없고 의미로 갈무리되지 않는 이야기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한 무의미들이 연극적

“고통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맞서 싸우는 인간에게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사소한 순간들에서 구체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물질적 이미지를 담아내려고 고민했달까요.”

밤은 깊어가고 놀이는 흥이 오르고 나들이옷까지 차려입고 둘러앉아 각자 김씨에게 선물을 내놓는다. 살림에 윤이 나는 둘째 박실은 자랑스레 금반지를 꺼내고 학생인 막내 봉아는 반짝거리는 유리 브로치를 내놓는다. 김씨는 브로치가 예쁘다며 진짜는 다 없어지니 가짜가 더 좋다고 한다. 이야기는 권씨가 올케인 김씨의 패물을 구경하다가 몰래 옥비녀를 꺼내 간 이야기로 이어진다. 김씨는 시집가는 어린 아기씨 권씨에게 자신의 옥비녀를 준다. 그러나 권씨의 결혼은 짧게 끝난다. 권씨는 가족들이 모두 만주로 떠난 텅 빈 집에 돌아와 집을 지킨다. 김씨가 병을 얻은 큰아들과 함께 만주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권씨에게 찼던 옥비녀가 아들을 살린다. 어린 권씨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했던 김씨의 패물은 만주에서 가족들의 밥이 되고 집이 되고 옷이 됐다. 그리고 지금 김씨에게 남은 것은 은비녀 하나다. 봉아가 선물한 브로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고운 패물을 가지고 시집은 새댁 김씨가 은비녀 하나만을 간직한 채 환갑을 맞을 수 십 년의 시간을 오가고 안동에서 만주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을 잇는다. 그저 새댁의 패물 이야기이지만 한 집안의 일체에 대한 저항운동과 그 참혹한 시절을 살아낸 여자들의 삶이 담겨 있다. “술에 취해서 한번 뽀족한 이야기를 하지만, 최대한 드러내지 않아요. 정말 아픈 사람들은 고통을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최대한 따뜻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는 것, 울컥울컥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말을 돌리는 것이 더 사실적이예요.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인지 서로 다 아니까요.” 그는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고, 감상이나 청승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름다움은 고통에 맞서는 데에서 온다. “엄청난 고통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맞서서 의연하게 싸우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의 끈을 놓지 않는 인간에게서, 고통스럽지만 인간의 위대함, 희망,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아우성처럼 반짝이는

무의미한 것들, 사소한 것들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자 연극적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배삼식 작가의 이 말은 <화전가>에서 만의 고민은 아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연극에는 갈등과 충돌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는 자신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건을 단초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치달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삶의 모양과는 다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갈등으로 치달아가는 드라마의 강력한 힘이 빠져나간, 그 힘을 포기했을 때 생기는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왜 희곡일까. 드라마의 강력한 힘을 포기하면서 쓰고자 하는 연극은 무엇일까. “소설은 화자가 중심이 돼요. 한 작품 안에 여러 화자가 등장한다 해도 한 장면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장면에는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화자가 존재하는 거죠. 반면 희곡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목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견해나 입장조차 그 목소리의 한 부분으로 떼어놓고 볼 수 있게 만들죠. 희곡은 ‘나’를 객관화하는 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예술이예요.”

<화전가>에는 희곡을 쓰며 참고한 자료를 빼곡한 주석으로 밝히고 있다. 자료 중에는 구술서가 많다.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작품의 진실성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고통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구술서에는, 조각조각이지만 그 목소리가 살아 있어요. 역사책보다 그런 자료를 찾으려고 애쓰죠.” 희곡에 주석을 꼼꼼히 적는 것은 그의 글이 빛지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작업하는 이들과 글의 출발을 공유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자료를 구입해서 연습실에 비치해 함께 읽고, 선배들은 희곡의 주석을 보고 주문해서 사서 읽기도 했단다. <화전가>에는 안동 말이 마치 구전 가사처럼 흐른다.

<1945>도 그렇고 <화전가>도 그렇고, 그의 최근작들은 광복과 전쟁이라는 격렬한 시간을 다루고 있어서인지 이전 작품들과



달리 극적 긴장감이 팽팽하다. 그러나 그의 희곡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의미를 재현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의 희곡에서 의미는 인물들의 세세한 욕망, 세세한 순간들에 의해 해체되고 그 세세한 욕망과 순간들로 격렬한 시간이 재구성된다. 마치 <화전가>의 봉아가 엄마 김씨에게 선물하는 브로치에 빛이 부딪쳐 산란하면서 아우성처럼 반짝이듯이, 그의 희곡에서 시대는 하

나하나의 구체적인 삶으로 조각나고 재구성된다.

돌아보면 두 작품 앞에는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다룬 <먼 데서 오는 여자>가 있다. 앞서 백성희장민호극장 개관 기념으로 오른 <삼월의 눈>의 노부부가 살아낸 삶에도 현대사의 사건들이 배면에 놓여 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각색한 <라오지 양후 최막심>은 식민지 시절 만주로 시간과 공간을 옮겼다. 더 거슬러 올라가, 고(故) 김동현 연출 그리고 동료 작가들과 함께



작업한 <생각하는 사람>은 베트남전쟁부터 5·18 민주화운동까지 현대사를 가로지른다. 그가 전업 극작가로 입문한 미추에서의 양식적인 연극 작업이 <열하일기만보>에서 한번 매듭을 짓는다면, 이후로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작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열하일기만보>는 제가 만들어놓은 가상의 시공간에서 실험 유희를 했던 작품이에요. 놀이의 즐거움이 있죠. 오페라로 다시 공연할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김동현 연출이 기획한 ‘20세기근현대사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그 작업에서 현대사에 대한 소재를 처음 만났고, 제 작업으로는 <3월의 눈>이 20세기를 다루는 출발점이 된 것 같네요. <3월의 눈>은 처음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거절했는데 장민호·백성희 두 분을 만나고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950년대에 청춘남녀로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현재까지 살아온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장민호 선생은 이북이 고향이에요. 월남해서 그 시간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현재를 만들어놓은 멀지 않은 과거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뼈아프고 말하기 불편한 기억이지만, 광복과 전쟁 그리고 이후의 삶의 역사를, 연극적 서사로 만든 작품이 아직 너무 적어요. 소설과는 또 다르게 연극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 데서 오는 여자>의 주인공은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이지만, 이 작품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나온 작품입니다. 왜 사회적 인 고통에 대한 대응이 이토록 천박한지 생각했죠. 부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항상 죽음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쳐야만 했던, 죽음의 기억으로부터 재빨리 달아나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세대가 딸의 죽음 앞에서 있는 것이죠. <1945>는 국립극단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썼어요. 국내외로 뿔뿔이 흩어진 조선인들이 1945년 광복을 맞아 귀국하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극적으로 정체성을 증명해야 했던, 한국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대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쟁으로 밀려난 것인지

“수많은 의미가 뒤엉켜서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어떤 순간,
연극에서 그런 순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보려고 했고요. 차기작으로는 전쟁 직후 참혹한 학살이 지나간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의 희곡은 제작극장의 의뢰로 쓰여졌지만, 온전히 그의 세계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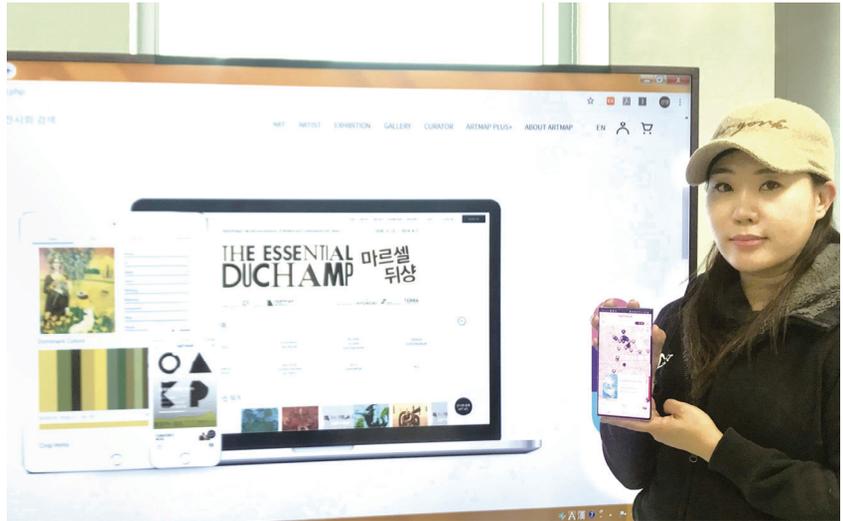
침묵이 젖어두고 어둠 속으로 무대가 사라지는 순간

배삼식 작가는 작품 설명이나 작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내 희곡을 무대에 복사하는 기계가 아니다.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내 글이 만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때” 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때문에 희곡을 쓰는 일이 행복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가 종종 인터뷰에서 “그저 쓸 만한 기술자가 될 수 있다던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할 때, 그는 극작가라는 자신의 자리를 ‘협업의 좋은 동료’라는 자리로 매김하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어떤 희곡을 쓰고 싶은지. “고등학교 시절 연극을 처음 봤어요. 대학생들 공연이었는데 멋졌죠. 침묵이 젖어두고 어둠 속으로 무대가 사라지는 순간이 좋았어요. 충만한 무의미, 수많은 의미가 뒤엉켜서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어떤 순간,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품고 있는 침묵, 연극에서 그런 순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나 행위가 필요 없어지는, 말과 행위가 소용을 다하는 순간 완성되는 순간. 그의 말을 들으며 그려본다. 아름답다.

글 김소연 연극평론가 사진 공간느루

주변에서 미술 작품 찾기



“신진 작가 작품은 왜 원활하게 판매되지 않을까?”

데이터와 취향을 분석한 알고리즘으로 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술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아트맵'의 김선영 대표가 3년 전 스타트업에 뛰어든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졸업 이후 작가로 활동했지만 미술계에서 젊은 작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다. 그때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지금의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을까. “중간에 판매 수수료가 붙어서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었죠.” 결국 재고가 쌓이고, 중견 작가에 비해 신진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가 유럽에서 들은 말도 “작가 수준에 비해 한국 시장은 다소 폐쇄적인 블랙마켓”이라는 것. 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편중이 극심해지는 악순환에 답답함을 느꼈다. 다행인 것은 “7년째 성장하고 있는 미술 시장에서 총 판매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트마켓이나 옥션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소장용 미술품 거래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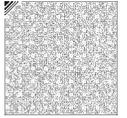
이에 김 대표는 미술관과 갤러리를 가까이 접하고자 하는 일반 관람객에 주목했다. 어떻게 보면 아트맵이 지향하는 것도 “영화·도서에 비해 대중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를 찾아보는” 일이다. 그래서 창업 후에 동료들과 전국에 있는 미술 공간을 전수 조사하는 무모한 일을 강행했다. 지금은 당시 고생한 덕분에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시 공간 2000여 개와 정보 21만 개가 등록됐다. 스타트업에서 주목하는 경영인으로 새로운 길을 나서는 그가 진짜로 원하는 바를 이렇게 고백했다. “대중이 없는 미술 시장은 의미가 없어요. 채테크와 투기 목적이라는 편견에 휩싸인 미술 시장이 실생활로 나와야 해요. 하루에 평균 460개의 전시가 열리는 거 아시나요? 내 주변 미술관을 찾는 것이 건강한 미술 시장을 만드는 지름길이지요.”

김선영

아트맵 대표



김선영은 영남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독일 함부르크 국립조형대학에서 회화와 예술학을 전공했다. 전업작가로 활동하다가 한국화랑협회 갤러리에서 작품 판매, 통역, 세무 등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퍼스널 아트큐레이션 스타트업 아트맵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수상 경력으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특별상(2016), 굿 콘텐츠 서비스 앱·웹 분야(2019) 등이 있다.



평론가와 행정가로서 균형 잡기

“머리와 가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요.”

지난해 영화계 현장에서 활동한 평론가에게 수여하는 ‘르몽드 평론가상’을 받은 최재훈 씨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이미 3년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제37회 영평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그에겐 독특한 이력이 뒤따른다.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연극·음악·무용·국악·전통·시각 등 전 장르에 걸쳐 13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글쓰기의 끈을 놓지 못하고 틈틈이 평론을 해온 것이다. 40대 중반에 늦깎이로 데뷔했지만, 가슴으로 일하는 ‘영화평론’과 머리로 일하는 ‘예술행정’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었던 셈이다. 영평상을 수상한 이후 꾸준한 노력의 결실을 인정받은 것일까. 2019년 12월 16일, 3회째 맞는 르몽드 평론가상 시상식에서 그는 “앞으로 상이라는 걸 다시는 못 탈 줄 알았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공모를 사이에 두고 ‘지원을 하는 일’과 ‘지원을 받는 일’ 사이에서 있는 최 씨에게 둘의 차이를 물었다. “공공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엄격하고 철저해야 하지만 창의적이어야 하는 예술에서는 균형 감각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평론과 지원에 서로 도움이 되거든요.” 권위 있는 영화평론계에서 인정받기까지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린 그만의 방식에 남모를 어려움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사실 영화와 이론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론으로 영화를 읽는 것은 부족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 강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동시대 영화를 읽어보고 싶어요.” 덧붙여 최 씨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를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시에 현장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의 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최재훈 영화평론가



최재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제37회 영화평론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등단했고, 2019년 제3회 르몽드 영화평론상을 수상했다. 이복영화제 프로그래머(2018), 서울무용영화제 심사위원장(2018)으로 활동했으며 공저로 《미국영화감독1》 《영화와 관계》 《영화와 도시》 《유럽영화감독1》 등을 출간했다. [문화+서울]에 영화 칼럼 ‘최재훈의 씨니컬’을 연재하고 있다.

탐욕에 무너진 가족 얘기

오유경 연출가



오유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학사 과정을 졸업했다. 영국 에식스대학교 대학원 영문과에서 드라마 비평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서 각각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34회 서울연극제 자유참가작 부문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작품으로는 <아가멤논가의 비극>(2003), <박제 갈매기>(2004), <서글퍼도 커튼콜>(2012), <그녀들의 집>(2015) 등이 있다. 그룹 동(動)·시대의 상임 연출가로 활동한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

동시대에 공명하는 울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연극 연출가 오유경은 2월 7~16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 <터널구간>(작 이상례)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2014년, 우연한 기회에 사회문제를 가족 안으로 끌어들이는 초고를 읽으면서 작품이 시작됐다. 이처럼 <터널구간>은 자본 논리를 무시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에 목매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준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장씨 가족 이야기다. 두 자녀의 배우자로 의사와 검사를 사위와 며느리로 삼아 자신이 못 이룬 사회적 욕망을 대신 충족해 주길 원했다. 생존에 불필요한 감정은 철저히 지워버리는 딸. 부모 문제에서 비롯된 애정 결핍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아들. 이들은 최소한의 자아를 상실한 껍데기 증후군의 인간을 나타낸다. 이처럼 물질을 향한 욕망 때문에 괴물이 돼버린 인간의 병적인 광기를 보면서 인간 본능에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것이 의도다. 최근 상속 문제로 가족 간 패륜적인 싸움이 날날이 공개된 한 재벌 항공사의 소식이 이번 연극의 줄거리와 묘하게 겹쳐 보인다. “검사가 청소부는 될 수 있지만 청소부는 검사가 될 수 없다”는 극중 주인공 대사처럼 연출가는 희생, 믿음, 소망, 배려가 없는 인간의 치부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비극으로 내몰리는 한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은 그의 전작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신에게 딸을 제물로 바친 <아가멤논가의 비극>, 세 딸에게 명예·희생·미모를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무너져가는 <그녀들의 집>처럼 철저히 무너지는 가족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 “모든 죄의 시작은 가족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가치관, 교육에서 말이지. 이것은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사회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이 시대의 나는 누구인가?”

무용으로 삶의 철학을 표현하는 안무가 미나 유는 2월 19~20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 <바디 락(Body Rock)>을 제작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이화여대 무용과 1회 졸업생인 그는 졸업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해 왔다. 일흔을 훌쩍 넘긴 연륜만큼 삶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매일 아침 살아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문을 연 그는 지난 날 힘들게 살아온 인류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 던지는 일침이랄까.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자신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고해성사”라고 정의했다.

무대 위 9명의 무용수가 등장한다. 60분간 간결하고 명료한 몸동작을 쉴 틈 없이 발산하듯 보여준다. 무용수들은 저마다 단상에서나 볼 법한 마이크를 쥔 채 격정의 몸동작과 뜻을 알 수 없는 비명을 반복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버리시(의미를 알 수 없는 지껄임)죠. 그래도 인간이 겪은 상황에 대한 고민을 담았어요.” 인생에서 튀어나오는 고난과 충돌을 특색 있는 오브제를 활용해 다양한 에피소드로 보여준다. 누구는 무언가에 얽매인 듯 ‘개줄’에 묶여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바리케이드’가 등장한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중동의 히잡까지. 어쩌면 마이크를 통해 “인생이란 정상적인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지는 것일지 모른다. 한국춤비평가상에서 작품상을 받은 <구토>(2017)도 인간의 존재를 다뤘듯 그는 한결같이 인간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고민했다. “바위·충돌을 뜻하는 ‘락’은 빠르게 변하는 현재를 반영하죠. 긴박한 상황에 정답은 없을 거예요. 관객에게 이번 공연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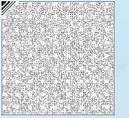
모든 인류의 고해성사

미나 유 안무가



미나 유(본명 유정옥)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했다. 젊은 시절, 미국 뉴욕의 조프리 발레스쿨로 유학을 간 뒤 뉴욕에서 15년간 무용단 활동을 했으며, 이후 유럽에서 활동했다. 귀국 이후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있었으며, 국민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2015),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부문 최우수작(2016), 한국춤비평가상 작품상(2018) 등을 수상했다.

봄이 임박해 오지
마지못해 아니,
내내 참았던
눈(雪)이 봄 강에
눈물처럼
떨어집니다.
눈이 기어코 봄을 부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연극의 해를 위해

제3차 '2020 연극의 해'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하고 2019년부터 준비해 왔으나, 연극인들에게 행사의 취지와 추진 과정을 공론화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질책을 받아왔다. 2019년 12월 16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1차 열린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후 2020년 1월 19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 참여 연극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젠더, 장애 등 다원화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체부는 3차 토론회에 앞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과 1차 토론회의 운영 미숙을 사과하고, 연극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연극인들과 관객이 하나 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와 2차 열린토론회의 내용 공유와 함께 연극의 해 추진 기구 구성 방안을 중심으로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이 이뤄진 3차 열린토론회 현장을 정리해 소개한다.

- 일시** 2020년 2월 11일(화) 오후 2~6시
- 장소** 대학로 이음센터 아트홀
- 사회** 심재찬 연출가
- 발제**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관 연출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성지수 연출가, 다원화된 연극현장에 맞는
연극의 해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제 1 2020년 연극의 해 사업 추진 경과
윤태욱

'연극의 해' 사업은 2019년 1월 말 문체부에서 기획되었다. 박양우 장관은 4월 30일에 열린 대학로 연극인 간담회에서 연극의 해 추진을 공식화하는 발언을 했다.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인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하고 연극인들의 단합을 위한 다양한 연극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2020 연극의 해 추진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73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안이 도출되었다. 8월 말 정부 예산안이 11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9월부터 진행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억 원이 증액돼, 최종 예산안은 21억 원으로 12월 11일에 의결되었다. 문체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여러 연극인도 나서서 함께 노력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11월 12일 한국연극협회(이하 협회)에서 추진위 구성안을 마련하고, 11월 22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한국연극평론가협회를 중심으로 문체가 제기되면서 연극계에 공론화되었다. 추진위는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마치고 해체되었다.

12월 16일에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2020년 1월 21일과 22일 협회 주관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가 열렸고, 1월 29일 2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연극의 해는 연극인 주도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문체부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변함이 없다.

1차 열린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면 사업 방향은 ▲젊은 층과 노년층의 공감대와 소통이 필요하다 ▲행사보다는 제작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연극계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관객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 ▲연극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등이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협회가 주관해서 해야 한



제3차
2020 연극의 해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1차
연극의 해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2020년 2월 11일(화) 14:00
대학로 이음센터 아트홀(5)

다는 의견과 협회가 연극인을 대변할 수 없고, 젊은 연극인과 지역 연극인이 소외되지 않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공론화 과정이 늦어지고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발제
2

2020년 연극의 해 연극 균형발전과 부흥을 위한 한국연극협회의 역할과 범연극인 소통을 위한 대토론회(요약)

김관

지난 1월 21일과 22일 세종과 대구에서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겠다. 연극의 해를 맞이한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이 생성되는 사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하고, 연극인의 복지 향상이나 인권에 대한 사업은 물론 지역·성별·계층 등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협회가 주관하되 다층의 연극인들이 함께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연극계의 갈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 안배와 여성과 청년층을 배려한 정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했다. 1차 열린토론회에서 협회에 대한 불신이 제

기됐는데, 협회는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바뀌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협회와 기존 연극인들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 갈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연극 생태계와 연극인의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다 ▲일회성 사업은 의미 없고 정책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기획하고 매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관 주도가 아닌 현장 연극인 중심의 조직위가 결성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조직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한다 ▲문체부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 내용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사랑티켓의 부활, 역사적인 연극 공간에서의 기념사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발제
3

연극의 해 추진을 위한 의견 정리와 제안

성지수

1차와 2차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해 다

제3차 '2020 연극의 해'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현장

양한 연극인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연극의 해를 꾸려나가기 위한 방식을 제안한다. 연극인들은 지역, 세대, 협회 가입 유무를 막론하고 연극의 해가 보여주는 식의 큰 이벤트나 선심성 사업 등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한국 연극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열린토론회를 통해 과거에 비해 훨씬 다원화된 연극계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를 역지로 통합하려 하기보다 다양한 연극 현장과 그 의제를 구체화하고 길게는 정책 수립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관행이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연극의 해가 돼야 한다는 점,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정체성을 지닌 연극인들이 세대·지역·젠더 등과 관계 없이 소외되지 않고 '나'가 포함된 연극의 해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둘째, 다원화된 현장을 포괄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독립성 요구가 있었다. 그간 연극의 해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과 공론화에 소극적이던 협회 내부에 집행위원회가 꾸러지기보다는, 범연극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집행위원회의 출범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 연극의 경우, 견제할 장치가 없어 큰 권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협회 중심 구조의 한계가 지적됐으며, 연극의 해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2020 연극의 해는 다양한 단위의 분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 역시 분과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집행위원회는 20인 이상(분과별 4인 내외)으로 하고, 각 분과의 이슈와 밀접하게 활동하고 사업을 진행해 온 현장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2인 이상을 호선하고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필수 분과는 젠더·퀴어, 전국 단위의 청년 네트워크, 장

에 연극,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등 4개를 제안한다. 젠더·퀴어 분과는 페미니즘 연극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퀴어연극제, 전국 단위의 청년 네트워크 분과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화학작용,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장애 연극은 Oset 프로젝트 등, 안전한 창작환경조성 분과는 (가)KTS(한국공연예술차지규약) 워킹 그룹과 (가)공공극장 안전대책 촉구 연극인 모임 등이 집행위원 추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미 1차와 2차 토론회에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 구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위원회 구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년·원로 연극인 분과 등의 구성은 해당 이슈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단위에서 추천·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2부는 발제자와 플로어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심재찬 연출가는 “1차와 2차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연극계가 이번 기회에 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서 공연예술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극계의 블랙리스트와 미투는 우리 문화를 바꾸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3차 토론회는 추진기구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공지했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김윤걸 연출가는 열린토론회 역시 파이팅 나눠 먹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서 “연극의 해가 예술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사업계획서의 방향에 공감했다. 분과를 잘게 나누면 이 방향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경제적 가치는 두고라도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가지고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성지수 연출가는 “사업계획서는 연극의 해와 국립극단 70주년 행사를 합쳐 73억 원의 예산을 기준으로 했다. 사업계획서의 목표와 추진 방향은 공감하지만 현재 예산으로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행사나 공연 제작보다는 제작 환경을 바꾸



고 연극계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쓰자는 의견 등이 반영됐기 때문에 분과별 진행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에 홍예원 연출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연극인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행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성별과 연령을 특정해서 말하는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 젊은이, 비남성 연극인들의 요구다.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다. 연극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연극을 해나갈 것이고 어떤 방식을 지양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윤걸 연출가는 “1차에는 협회와 현장의 갈등이 있었고, 2차는 다양한 연극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극의 해가 화합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고령화, 취업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슈가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재찬 연출가는 “기존 세대의 기득권이 없어져야 한다. 모든 것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돼야 하고 연극계의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예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정리했다.

지역별 상황 고려해야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박태양 사진작가는 “부산에서 2년 정도 작은 극단을 담당했다. 지역의 젊은 작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꾸준히 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협회의 지원보다는 지역의 젊은 연극인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학 연극영화과나 극회 출신, 시민극단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에 산재하지만 이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이들이 서로 존재를 인식하고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트워킹은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다”면서 네트워킹 공간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지역협회 사무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관 사무총장은 “연극의 해 예산을 나눠먹기 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킹 공간 확보를 위해 연극인과 지역문화재단

이 연계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양 사진작가는 “지역의 젊은 작업자들이 떠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동료가 없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배가 대부분이고 또래 작업자와 함께할 발판이 없다. 두 번째는 피드백이 없다. 비판이든 비난이든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연극제에 나가는 공연만 한다. 예산을 통과하는 극단도 거의 정해져 있다. 전국 단위 청년 포럼으로 젊은 작업자들이 수도권 작업자와 연결 돼야 한다. 젊은 층은 협회에 들어가 대한민국연극제에 나가는 것에 가치를 못 느낀다. 협회의 눈치를 안 보면 연극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관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연극제는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움직일 수 있다. 지역 안에서 젊은 이들이 바뀌나갈 필요가 있다. 작년부터 연극제 안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의 청년연극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연극인이 함께해야

분과 구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송경화 연출가 겸 배우는 “예산 21억 중 10억여 원이 연극의 해 예산일 텐데, 작품 만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부족하다. 그동안 현장을 연구하고 문제를 개선할 비용을 지원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연구 지원이 확장되면 다음 해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전환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공연과 축제를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예원 연출가는 “2차 토론회의 장에 연극 발제에서 극장의 접근성과 창작을 위한 공간의 접근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슈별로 고민해온 단위에서 그 이슈를 다루고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집행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 비율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지수 연출가는 발제 내용에 추가해 “서로의 목소리를

(왼쪽부터)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심재찬 연출가,
 성지수 연출가,
 윤태욱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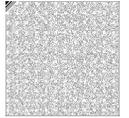
존중하고 분과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로의 관심을 확인하는 연극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와 관객의 요구가 다원화·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협회가 지역에 조직을 갖고 있고 많은 연극인이 속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회 내부에 집행위원회가 꾸려지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가 추천한 위원을 내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범 연극인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승 배우는 “협회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지역에서 연극하는 분들이 집행위에 몇 명 정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4개 분과 외에 대한민국연극제, 서울연극제, 지역의 연극제 등 다른 축제를 준비하는 기존 팀들과 집행위를 같이 꾸리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관 사무총장은 “협회는 주최와 주관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미 조직 체계가 있고 전국 단위의 조사가 돼 있는 직능별 협회와 지역 협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지수 연출가는 지역만으로 단순하게 얘기될 수 없는 지역예술인 내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협회가 주관했을 때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 이면서 여성예술가는 과연 자신이 포함된 연극의 해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구성에 좀 더 많은 분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새로운 의제가 필요한 때

2차 토론회에 발제했던 이리 배우는 “연극계를 위협하는 내·외부적 요인에 대한 성찰과 인식 개선, 대응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블랙리스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연극의 해인지, 연극인의 해인지 의문이 들었다. 애초에 우리가 만든 연극이 별로라거나 연극 자체의 예술성과 사회적 가치가 떨어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연극인 당사자가 외부적인 블랙리스트나 내부적인 미투로 연극을 만드는 환경에 위협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연극의 해는 새로운 의제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심재찬 사회자는 “문체부를 우려와 불신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연극의 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하나였다. 연극계와 소통 없이 하다 보니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 사무총장은 협회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북에서 활동하는 최솔 연출가는 “40년 전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는 협회가 모든 연극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성이 있다. 선출직 조직에서 반대



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협회라는 조직 안에도 명암이 있다. 다양한 명암이 연극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라면서 "연극의 해가 연극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대한민국의 연극을 알리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협회의 전국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협회 외의 조직을 양지로 끌어내 함께할지를 생각해 한국 연극 전체를 아우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지수 연출가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연극의 해가 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연극계 미투 운동 초반에 대학로에서 관객들의 위드유 집회가 있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연을 보고 싶다는 관객들의 의지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야 하고, 축제보다는 포럼과 같은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블랙리스트와 미투 이후 연극계 내에 평등하면서 안전한 창작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극의 해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을 지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 이전에는 소수 권력자의 의견으로 정책이 마련됐다.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 모순이 생긴다. 이 안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고민하며 천천히 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리 배우는 동의하며 "2차 토론회에서 젠더와 퀴어 관련 발제를 하면서 답답했다. 퀴어 부문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분이 많아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분과 활동이 가능할까. 젠더 다양성 연극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장애와 퀴어 부문은 조직을 구성하고 발언할 기반이 없어서 연구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연출 겸 배우는 "준비 시간이 짧고 예산도 부족해 잔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연극은 연극의 해에서는 내려놓으면 좋겠다. 동시대 연극이 무엇이고, 시민의 생각은 어디로 향해 있고, 대중문화 안에서 연극은 어디에 있는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청년 연극인 부진서는 "우리는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전 시스템은 선택의 권한이 한 곳에 몰려 있고 다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청년 당사자가 직접 위원이 되고 그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네트워킹은 따로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련 연출가는 "현장에서 이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작업하는 연극인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론적으로 고민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담아서 구성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가야

그간 연극계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해 김관 사무처장은 "협회가 문체부의 제안을 받아 요구에 맞춰 진행을 시작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떠안고 책임질 상황은 아니다. 이것은 문체부의 사업이어야 한다. 연극인들의 반목처럼 비친 것이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윤태욱 과장은 "문체부는 연극인들이 현재의 자원을 알차게 쓸 수 있고 집행위 구성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존중하는 의미이지 회피는 아니다. 분과 구성도 연극인들이 만든다면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관객과의 접점을 어디에서 찾고 국민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2부가 끝날 무렵 성지수 연출가가 "현장의 제안이 채택되고 합의되는 절차와 이후 계획이 공유돼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예산과 실행을 책임지는 문체부에서 분명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윤태욱 과장은 열린토론회에서 결과를 도출하면 100%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부에서는 집행위원회 추천위원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총 9명의 추천위원이 선임됐다. 심재찬 사회자는 "올해 연극의 해는 이전에 경험했던 축제나 행사와는 패러다임이 달라야 한다. 사업이나 행사 중심이 아닌 연극계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연극의 해가 돼야 한다"면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정리 전민정, 객원 기자. 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인 김창제

감염질환 사태에 대비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연예술계 비상

“정말이지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코로나19 상황이 더 장기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될 경우엔 공연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어린이 전문 극단들은 관객이 급감해 우리보다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문화예술인 모임에서 만난 연극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기를 고대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극단 관계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공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공연 예술을 포함해 문화예술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이뤄지는 연주회나 연극, 뮤지컬 등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 우려로 예매 취소가 잇따르고, 관객들의 발길도 급감했다. 배우나 연주자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공연을 아예 취소하거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하는 사례가 속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이하 보스턴 심포니)의 첫 내한 공연이 공연 1주일여를 앞두고 취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은 공연이었지만 보스턴 심포니는 아시아 투어 일정을 통째로 중단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KBS교향악단·대구시립교향악단·성남시립교향악단 등도 연주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대전예술의전당 등은 아예 공연장 문을 닫기도 했다.

연극계의 경우 대학로 극단 관계자들은 “약 20%의 관객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한다. 특히 단체 관람객 비중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연극의 피해가 크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의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기 있는 뮤지컬들도 공연을 중단한 가운데

시민들도 관람을 주저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임원은 “고객 사은행사의 하나로 단체관람을 예정했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대중가수들의 콘서트, 한류 스타들의 해외 공연, 야외에서 예정된 갖가지 문화행사도 한파를 맞았다. 지역 축제도 유례없는 취소·연기 사태가 벌어졌다. 다만 관객 급감으로 위축된 영화계의 경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장은 수치로도 일부 확인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눈에 띈다. 관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요일인 지난 2월 2일 매출액은 13억4000여만 원이었으나 9일에는 8억8000여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앞서 토요일인 2월 1일 매출액은 19억5000여만 원이었으나 8일엔 12억6000여만 원으로 급락했다. 주말 매출액이 늘 20억여 원을 넘어선 지난 1월과 비교하면 2월 주말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사실 공연예술계에는 감염질환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2015년 6~7월 벌어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다. 당시 관람객 감소와 공연 취소가 잇따르며



1



2



3

공연장은 문을 닫아야 했다. 물론 피해도 컸다. 공연예술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메르스 사태처럼 재현될까 봐 진전공공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2월 말까지 계속될 경우 3월은 물론 상반기 일정엔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한다. 메르스 감염 공포가 전국을 뒤덮은 당시 2개월 동안 연극·뮤지컬로 대표되는 공연 티켓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떨어졌다. 재정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 공연기획사와 소속 예술가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정부의 지원과 대책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정부의 공연예술계 지원 대책도 필요할 전망이다. 메르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문화예술계를 지원했다. 문체부는 당시 공연 티켓 구입 시 한 장 더 주는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소비 심리를 더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순회 공연과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계의 메르스 관련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펴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시사점을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문화산업계의 경우 기반이 약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성상 일시적 위기 상황이 장기적 위축 내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책과 관련, "직접적 피해 보상뿐 아니라 세금 감면, 긴급 운영자금 및 향후 행사에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은 문화예술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에 매달리는 상황"이라며 "향후 피해 상황 파악 등을 통해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도재기,경향신문 선임기자

1,3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예술계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사진은 공연장 내부 이미지).

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열감지기를 설치한 서울시립미술관 로비(사진 제공 경향신문)

문화적 이질과 혼종의 장

남산예술센터의 일본, 중국
희곡 낭독공연과 동아시아 희곡

희곡 낭독공연이 대세다. 공연 전 쇼케이스 형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립극단 희곡우체통처럼 신작 희곡을 대상으로 낭독회를 열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위원으로 관계하고 있는 한일연극교류협의회에서도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을 2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 2018년부터는 한중연극교류협회도 매년 <중국희곡 낭독공연>을 열고 있다.

동아시아 희곡 낭독공연 흥행

낭독공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대단하다. 2월 21일부터 3일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열린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은 티켓 오픈 15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티켓 판매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물론 올해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3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한일연극교류협

의회와 한중연극교류협회는 낭독공연을 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곡집 발간도 병행한다. 《현대일본희곡집》은 곧 9집이 출판될 예정이다.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전통 희곡과 현대 희곡을 총서로 발행해 스무 편 가까운 희곡을 소개했다. '낮설기만' 하던 동아시아 희곡이 한국 무대에 개성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낭독공연을 독회라고 부른 적도 있다. 말 그대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무대에 오른 <그 밤과 친구들>

©Suzuki Ryuchiro



로 희곡을 읽는 모임이다. 그러나 낭독공연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 읽는 행위에 공연성을 가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격과 개념은 다르지만 공연 못지 않은 역동성과 경험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래서 생긴 문제도 있다. 낭독공연과 공연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차별화되지 못하는 경우다. 심지어 최근에는 낭독공연의 형식을 빌려온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극단 글과무대의 <테라피>라는 공연이다.

낭독공연, 동아시아 연극 교류의 마중물

동아시아 희곡을 낭독공연으로 올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재정적 이유가 첫 번째다. 소규모 예산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가심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 탓이다. 욕심 같아선 작은 소극장이라도 빌려서 공연을 올리고 싶지만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다.

다른 쪽에서 가치나 의미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연출이나 창작자들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공연보다는 희곡에 더 포인트를 맞췄으면 하는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처음 소개하는 것인 만큼 ‘변형’이나 재해석보다는 원작의 가치를 발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생적 민간 교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목적을 두기도 한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 교류이기에 가능한 생각이다. 2002년 발족한 한일연극교류협회의 회만 하더라도 45편의 일본 희곡을 한국어로 번역 소개했다. 반대로 같은 수의 한국 희곡을 일본어로 번역 출판했다. 그 가운데 낭독공연의 연출가가 실제로 무대화한 예가 적지 않다. 물론 협의회와 전혀 무관한 이들의 공연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일본에서는 공공 교류에 더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민간 교류의 생태계가 조성된 만큼 자생력에 맡겨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귀동냥이나 책에서만 부분적으로 접했던 작품들이 이제 막 번역되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반응은 2000년대 초반 일본 연극에 보이던 것만큼이나 뜨겁다. 고선웅 연출의 <낙타상자>(원작 라오서)와 김광보 연출의 <물고기 인간>(작 귀스싱)이 작년 한 해 큰 관심을 받았다. 올 서울연극제에서는 사예신의 <내가 만약 진짜라면>이 김재엽 연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모두 <중국희곡 낭독공연>을 통해 소개된 작품이다. 일본과 달리 중국의 경우 체제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선불리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질과 혼종 속에서 움트는 새로운 상상력

짧지만 동아시아 희곡 낭독공연을 준비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환상이다. 그것을 회복하고자 교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교류를 통해 그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적어도 희곡에서 발견되는 정서와 극작술과 세계관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다. 차이를 발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차이를 발견하고서야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확인이다.

지원금에 의존한 공공 교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속된 말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 행사를 접어야 한다. 불안정성과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나라에 따라 지원금이나 예산 규모에 차이가 크다 보니 구색을 맞추는 데 에너지를 낭비한다. 물물교환식 교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그림과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도 ‘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썼다. 어디까지나 편의적으로 쓴 개념이다. 가야트리 스피박의 말처럼 아시이는 경계나 구조를 지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생성적인 개념이다. 정치적이고 지리적으로 조건지어진 아시아의 개념을 스스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질과 혼종 속에서 새로운 상상력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동아시아 희곡 낭독공연이 문화적 이질과 혼종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유다.

글 이상근 연극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무너뜨리다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과 <적벽>

시조와 판소리. 현대 뮤지컬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시조와 판소리를 뮤지컬에 접목해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은 작품들이 있다. 시조에 힙합을 결합한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과 판소리에 현대무용을 더한 <적벽>이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20~30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국내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두 작품이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다시 무대에 오른다. 후자는 비극적 인물을 통해 따뜻함과 정의를 말한다. 색다른 두 판타지에 흠뻑 빠져보시길.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조를 랩으로, '조선 스웨그(swag)'가 폭발한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 흥익대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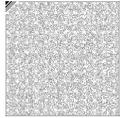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2.14~4.26)은 지난해 초연임에도 입소문이 나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들의 요청으로 막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앙코르 공연으로 돌아왔다.

이 작품은 설정 자체가 기발하고 독특하다. 시조를 짓고 읊는 것이 금지된 조선 시대에 15년 만에 '전국 시조 자랑'이 열리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얼굴에 탈을 쓴 채 정체를 감춘 비밀시조단 '굴빈당'은 이를 기회 삼아 조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자유롭게 시조를 읊는 세상을 꿈꾸는 '단'과 비밀을 감추고 있는 시조꾼 '진'은 그 중심에 선다.

시조를 소재로 삼았지만 극 전개가 빠르고 리듬감 있게 진행된다. 시조에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선율을 더해 랩으로 재탄생시킨 덕분이다. 시조의 압운과 힙합의 라임이 비슷한 점에 착안한 것이다. 서로 경쟁하며 번갈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아가며 랩을 하는 힙합 배틀처럼 시조 배틀이 한바탕 벌어진다. 춤도 전통 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보잉, 스트리트 댄스, 발레 등을 결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품은 이를 통해 백성들의 '한'을 '흥'으로 승화시킨다. 자유롭게 시조를 읊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분출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한은 쌓이고 쌓여 커다란 위력을 지닌 흥으로 발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작품을 본 관객들이 힙합 용어 '스웨그'(swag·자기만의 스타일 또는 멋)를 차용해 "조선 수액(스웨그를 우리말로 변형시킨 말)이 폭발한다"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다. 놀랍게도 참신하면서도 세련된 무대를 만든 제작진 대부분은 신인이다. 우진하 연출가·박찬민 작가·이정연 작곡가가 서울예대 공연창작부 재학 중 수업 과제로 만든 작품이다. 이후 공연기획사 'PL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상업 뮤지컬로 재탄생시켰다. 배우들도 대부분 신인이다. 단 역엔 이휘중·양희준·이준영이 캐스팅됐으며, 진 역은 정재은·김수하가 맡았다. 패기 넘

치는 젊은 창작진과 배우들이 만들어낸 신명 나는 뮤지컬에 '제대로 놀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익숙한 새로움’을 내세우다

〈적벽〉 | 정동극장

웅장한 판소리 합창에 현대무용 군무가 결합된 뮤지컬 〈적벽〉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처럼 대학생들의 색다른 도전으로 시작됐다. 2016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에서 상을 휩쓴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학생들의 〈적벽무〉가 원작이다. 대본과 연출을 맡은 전통예술학부 정호봉 교수가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다. 2017년 초연 때부터 호평을 받아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정동극장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적벽〉은 관객에게 ‘익숙한 새로움’으로 다가간다. 소재는 친근하게, 무대는 기존 판소리 공연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뮤지컬로 만들었다.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유비·관우·장비가 형제의 의를 맺는 장면, 조조에게 대항하기 위해 제갈공명을 찾아가 삼고초려하는 장면, 조조 군대와 의 전쟁 등 친숙한 내용이 이어진다. 내용 자체는 중국 고전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국적인 해석이 가미됐다. 특히 유비·관우·장비의 인간적인 면모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2인 중심의 판소리 공연과 달리 배우 21명이 한번에 쏟아내는 판소리 합창은 이 작품의 백미다. ‘적벽가’는 통성(배에서 위로 바로 뿜아내는 성음)이 많아 소리꾼에게 어려운 판소리로 꼽힌다. 그럼에도 시원하게 소리를 내지르는 배우들의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메운다. 이를 듣고 있으면 거대한 전장의 한복판에 온 것만 같은 느낌도 든다.

부채를 활용한 현대무용도 화제가 됐다. 배우들은 각자 흰색과 붉은색의 부채를 반복해 접었다 펼치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리듬이 만들어진다. 부채는 배우들의 몸짓과 어우러져 군사들의 창과 방패가 되고, 조조 군대를 멸하기 위한 화공(火攻)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남풍이 되기도 한다. 또 불타오르는 전장을 완성하는 불 자체가 돼 온 무대를 붉게 물들인다.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작품임에도 파격적인 캐스팅도 내세웠다. 올해 공연에선 젠더프리 캐스팅(성별과 관계없이 배역을 정함)을 선보인다. 조조 역을 소리꾼 안이호와 박인혜가 연기한다. 〈적벽〉은 그렇게 전통 공연이 가야 할 길과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글 김희경_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 제공 PL엔터테인먼트, 정동극장



뮤지컬 〈적벽〉

미술, 장벽을 넘다

전시 <CONNECT, BTS>와 <모네에서 세잔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전>

국적·장르·세대가 다른 세계적인 명성의 현대미술가들이 방탄소년단(BTS)과 협업한 글로벌 현대미술 전시 프로젝트가 한국 주도로 펼쳐졌다. '지역'이라는 장벽을 넘은 <CONNECT, BTS> 전시를 계기로, '시간'이라는 장벽을 넘은 인상파 거장의 전시 <모네에서 세잔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전>을 함께 소개한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Green, Yellow, Pink>, 앤 베로니카 안센스

“자막”이라는 1인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며 한 말이다. 이어 오스카 4관왕 수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한국 영화가 한 세기 만에 언어·지역이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때, 참으로 ‘시의적절’하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이 한국 미술계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국적·장르·세대가 다른, 세계적인 명성의 현대미술가들이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과 협업한 글로벌 현대미술 전시 프로젝트가 한국 주도로 펼쳐진 것이다.

장벽을 넘는 미술, ‘지역’이라는 장벽을 넘은 <CONNECT, BTS> 전시를 계기로 수세기에 걸쳐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장벽을 넘은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 <모네에서 세잔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전>을 함께 소개한다.

<CONNECT, BTS> 지역이라는 장벽을 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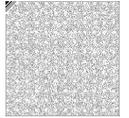
<CONNECT, BTS>(SEOUL)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배움터 B2 디자인전시관

2020년 세계 미술계는 ‘BTS’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진 일대 ‘사건’에 주목했다. 영국의 명문 갤러리인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부터, 베를린의 유서 깊은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Martin-Gropius-Bau)’까지, 연초 전시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CONNECT, BTS>가 바로 그 사건이다.

<CONNECT, BTS>는 지난 1월 1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미국 뉴욕,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까지 전 세계 5개국 5개 도시에서 20여 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함께 한 글로벌 전시 프로젝트다. BTS와 함께 그들의 강력한 지지자인 ‘아미(ARMY)’가 이 시대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전파하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전 지구적인 메시지로 확장하고자 마련됐다.

토마스 사라세노·안토니 곰리·앤 베로니카 안센스 등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아티스트들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 것도 놀랍지만, 서펜타인 갤러리·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을 비롯해 에스더 쉬퍼 갤러리·루스 벤자카 갤러리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각각의 큐레이터들이 공동 기획에 합류한 것은 글로벌 아트씬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의 이대형 아트디렉터(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에 따르면, 이는 “역사적인 공동 전시기획(Collective curatorial



practice)의 결과물”이다.

5개국 전시에는 BTS 그 자체를 모티프로 삼거나, 그들을 오마주하는 작업은 없다. 이른바 'BTS 전시'라고 했을 때, 대다수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BTS 이미지가 이 전시에는 없다. 대신 BTS의 철학과 메시지,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며 지역을 초월한 '미술 언어'가 있을 뿐이다.

한국 전시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볼 수 있다. 영국 출신 작가 앤 베로니카 안센스가 빛과 안개를 이용해 다양한 질감과 감성을 연출한 공간 설치 작품을, 한국 작가 강이연이 BTS의 주요한 안무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프로젝션 맵핑 작업을 아카이브 전시 섹션에서 각각 선보인다.

〈CONNECT, BTS〉 전시 프로젝트는 '비엔날레'처럼 국제적 권위를 갖는 대규모 미술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한 세기 가까이 이어져 한낱 한 장소에서 열리는 미술전이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지역의 장벽을 허무는 공동 전시기획 '사건'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될지 기대를 모은다.

‘모네에서 세잔까지’ 시간이라는 장벽을 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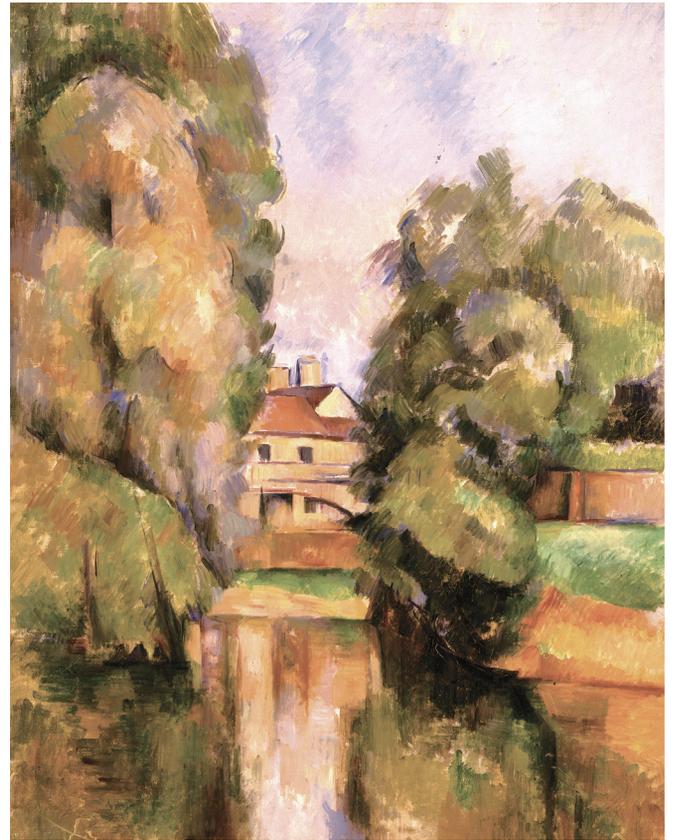
〈모네에서 세잔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전〉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한국에서 '흥행 불패'로 일컬어지는 세 가지 전시가 있다. 공룡 전시, 이집트 미라 전시, 그리고 인상파 전시다. 특히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수 세기를 뛰어넘어 21세기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국 관람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한 〈모네에서 세잔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전〉은 2020년 연초부터 또 하나의 '인상파 전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루 관람객 1000명 안팎을 줄 세우며 인기몰이 중이다.

이 전시에는 유럽 인상주의 화파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박물관 소장품 106점이 걸렸다. 특히 인상파 창시자 중 한 사람인 클로드 모네의 최고 걸작으로 알려진 수련 연작 1점이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모네가 시력을 잃기 전 완성한 〈수련 연못(Pond with Water Lilies)〉이다.

이와 함께 폴 고갱의 〈우파 우파-불춤(Upa Upa-The Fire Dance)〉, 폴 세잔의 〈강가의 시골 저택(Country House by a River)〉, 알프레드 시슬레의 〈생 마메스의 루앙강에 있는 바지선(Barges on the Loing at Saint-Mammès)〉 등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대표작들이 전시됐다.



〈강가의 시골 저택(Country House by a River)〉, 폴 세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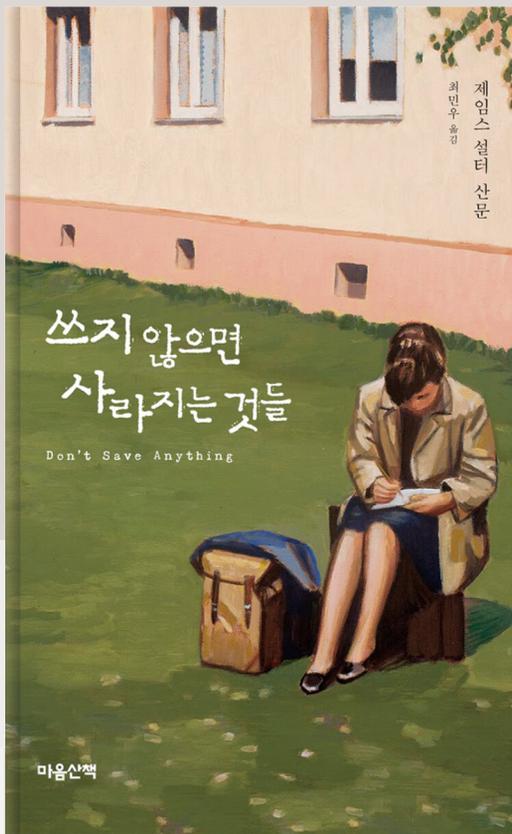
1965년 예루살렘에 설립된 이스라엘 박물관은 이스라엘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문화기관이자 미술 및 고고학 박물관 중 하나다. 성서 시대를 비롯한 이스라엘 땅의 가장 포괄적인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역사의 사해 사본에서부터 현대 저명한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품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약 70년 동안 전 세계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작품은 약 50만 점에 이른다.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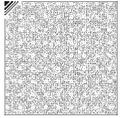
글 김아미_헤럴드아트데이 대표 사진 제공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술의전당

소설가의 논픽션

책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과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미국과 한국의 대표 소설가 제임스 설터(James Salter)와 박완서의 논픽션 모음집이 시기마저 비슷하게 출간됐다. 존재와 삶에 대한 물음에 쓰는 행위로 답하며 많은 독자에게 사랑 받아온 그들이 준비한 부록 같은 선물이다.





기록함으로써 존재한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 | 제임스 설터 지음, 최민우 옮김 | 마음산책
2015년 6월 세상을 뜬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설터(1925~2015)의 논픽션 모음집.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피플》《에스콰이어》《뉴요커》《파리 리뷰》 등에 쓴 기사와 인터뷰 등이 실려 있다. 설터가 집필한 논픽션 가운데 최고의 글을 모은 책이다.

책에 실린 기사, 에세이, 인물 소개는 세상과 사람들, 특히나 무언가를 이루고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그의 끝없는 관심이 무척이나 넓고 깊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책이 독자에게 어떻게 읽힐지, 어떤 의도로 다가가길 원하고 쓰인 것인지 파악하는 게 북 리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라 할 때 이 책은 꽤나 반복적으로,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힌트를 준다. 책은 설터의 문학적 연대기이자 인생의 정수라 할 기록을 보여줌과 동시에 설터의 ‘쓰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설터는 쓰는 행위를 통해 세계를 진실로 존재하게 한다. 설터는 자신이 쓰는 행위를 끝없이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그러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존재한 적도 없게 되고 만다는 위험에 처할 테니까”라고 말한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게 잊힐 것임을 아는 그는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사라져가는 세계의 쓸쓸함과 영구불변하게 남을 세계 모두를 기억해 낸다. 기록을 통해 우리가 이 세계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행위들, 입 밖으로 뱉어낸 말들, 지냈던 도시, 살아낸 삶 모두를 한데 끌어들여 책의 페이지로 옮겨야 한다는 고집이 이해된다.

작가의 거울이 된 ‘쓰기’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 박완서 지음 | 작가정신

2011년 1월 세상을 뜬 소설가 박완서(1931~2011)의 책에 실린 ‘작가의 말’을 한데 묶은 책. 소설·산문·동화 등 단독으로 출간한 도서에서 작가가

직접 작성한 서문과 발문을 한데 엮은 것이다.

집필 후 매번 느낀 소회와 감정은 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감추었다는 느낌을 주지도 않는다. 솔직함과 담백함이 묻어 있는 성실한 고백은 글 앞에서 주저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느꼈을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아니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지쳐 있고 위안이 필요하다, 기껏 할자 공해나 가중시킬 일회용품을 위해서 이렇게 진을 빼지 않았다는 위안이.”(박완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작가의 말’에서)

연대순으로 ‘박완서의 말’을 심되, 재출간·개정판·개정증보판을 함께 다루어 박완서의 초기·중기·후기 문학을 한 호흡에 읽는 재미도 있다. 독자마다 책을 읽어내는 방식과 울림을 받는 지점이 다르지만, 박완서의 문학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열쇠로 이 책을 가늠해 보는 것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쓴 글들은 내가 살아온 시대의 거울인 동시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거울이 있어서 나를 가다듬을 수 있으니 다행스럽고, 글을 쓸 수 있는 한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박완서《그 여자네 집》‘작가의 말’에서)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거의 모든 작가의 말 끝부분에는 책을 함께 만든 이들(출판사)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표현되어 있다. 박완서의 성실한 감사의 기록으로, 이 책이 조금 더 다정하고 친근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 이유기도 하다.

가끔 작가들의 등단작과 당선 소감을 읽다 보면 오히려 당선 소감이 더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등단작의 우수함과 별개로, 기교와 화려한 수사(修辭) 없이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낸 글이 독자의 가슴에 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의미에서다. 이 책이 그렇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마음산책, 작가정신

그리움과 추억으로 다리를 놓다

-시인, 고정희에게 가는 길-



고정희 시인

정희야. 잘 있지? 니가 있는 곳으론 가볼 수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으니 상상조차 안 된다. 하지만 니가 있으니, 좋은 곳, 편안한 곳이라 생각할게. 니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 뒤론 한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너의 벗들이 모이는 곳. 아직도 있단다. 그 이름 그대로. 잘 알지? 여기까지만 귀땀해도 금방 알겠지? ‘또 하나의 문화’. 요즘도 그곳에서 나를 기억해 불러주면 무척대고 간단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지난 연말엔 서로 인사말을 나눴어. 내 차례가 됐어.

“시인 고정희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정희가 그리워서, 이곳에 오면 고정희를 그리워할 수 있어서 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만 목이 메어서 입안의 말이 너무 무겁게 젖어서 더듬거렸어. 갑자기 공간에 그리움과 슬픔이 고이는 것 같았어. 모두들 어찌 너를 잊겠니! 슬픔은 막아지거나 버려지지 않으니까.

너와 나는 동갑이야. 쥐띠. 생일은 니가 나보다 겨우 열하루 빨라. 너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온 촌사람, 나는 강원도 동해안, 설악산 아랫동네에서 온 촌뜨기. 그런데 너는 품이 넓은 촌사람이고 눈은 서글서글, 키도 컸어. 나는 속이 좁은 자그마한 여자였지. 내가 너에게 시가 얼마나 시시하냐, 그렇게 짧은 거 쓰는 게 얼마나 쉽냐고 놀렸잖아. 사실은 시가 더 훌륭해. 진심이야.

우리가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 출판사? 아니면 음식점? 난 열등감 때문에 사람도 잘못 만나고 어디 잘 가지도 못했어. 뇌 구조에 어떤 선(線)이 잘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몇 가지를 못 하는 게 있어. 그래도 이렇게 여태 살아있긴 하네.

너와 나. 우리가 살아 낸 서울 공간에 돌맹이로 표시해 둘 장소들이 아주 많잖아. 한번 뒤져볼까?

우선 옷기는 장소부터. 혜화동 네거리야. 우리는 무슨 큰 행사 뒤에 어깨동무를 하고 그곳을 걸었어.

“경자야. 난 아직 처녀야.”



니가 말했어! 나도 모르게 폭소를 터트렸던 거, 기억나지? 너는 술을 한 잔 걸쳤고 나는 기분을 걸쳤고.

“야!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공부거리가 남자야냐?”

나는 너를 마음껏 조롱했어. 너의 기분은 헤아리지 못했어. 그렇지만 심각해 한 것 같아.

다음은 여성백인회관. 이맘때 니가 거기서 일했어. 가정법률상담소 편집부장으로. 그곳에서 니가 여성주의 소설《절반의 실패》를 준비하던 내게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줬어. 얼마나 유익했었는지 몰라. 그맘때, 우리 말이야, 여성해방의 사유나 그 실천에 대한 열망은 가히 혁명적이었지? 일단 젊었으니까. 너는 미혼이었지만 나는 아이 엄마. 그래도 나를 미혼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 나의 태도나 생각, 표정, 말투가 다 미혼으로 보이게 했었나 봐. 그래서 좋았고 신바람이 났었어.

너는 얼마 후 그곳을 나와《여성신문》창간 일을 했어. 여성신문! 얼마나 놀라운 발상이고 실천이었던지, 흥분했지. 창간주주도 됐고. 그 후《여성신문》에서 소설가를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너, 이 일을 하기 전부터 페미니스트들의 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에 참여했지. 그곳에도 나를 데려가줬어. 그곳의 분위기는 외국에서 사회학이나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많아서 지식인 냄새가 진동했어. 대화는 어쩌나 영어를 섞어 쓰던지! 정서적으로 닿지 않아 잘 나가진 않았어. 하지만 여성해방문학 등의 일엔 같이 했었지. 뿐만 아니라 그곳 친구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소중한 추억들이 많아. 다 너의 배려였어.

다음은 우리가 함께 부업으로 일했던 신사동 강남출판문화회관. 출판사 한길사에서 운영했던 ‘한국문학학교’. 생각나지? 너는 시를 가르치고 나는 소설을 가르쳤어. 그땐 정말 문학의 황금기였나 봐. 문학 지망생이 넘쳐나서 면접을 보고 학생을 뽑았으니까. 여기에 15년 형을 받고 중간에 가석방된 시인 김남주도 일했었지. 우리가 여성백인회관에서 김남주 석방을 촉구하는 쉼기대회를 했을 때 니가 말했던 거 생각나네.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남주와 정희가 크면 혼인 시키자고, 사돈 맺자고 약속하셨대지? 어쨌든 지금, 해남 너의 생가 뒤뜰에 너의 묘지가 있잖아. 김남주의 문학관도 해남에 있고.

수유리 지하나의 글 쓰던 방, 거기서 너도 하룻밤 잤지? 그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정오 무렵 갑자기 동네의 모든 까치들이 모여들어 마구 짹어대는 거야. 고양이까치가 잡았나? 상상했지만 그 때로 짹는 소리가 불길해서 마음이 얼어버렸어. 그런데 불길함이 다가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 고정희 선생님이 지리산 백사골에서 폭우를 만나 세상을 떠났다고…….

그날부터 니가 자꾸 꿈에 나오는 거야. 광주에 가서 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로도 거의 매일 꿈에 니가 나타났어. 모든 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행사를 꾸렸어. ‘고정희 추모의 밤’. 출판문화회관 지하강당이었지. 많은 분들이 와줬어. 시인 김초혜 선생님께서 떡을 해 오셨던 것도 잊히지 않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 이 행사를 마친 뒤로 너는 다시 내 꿈에 오지 않는구나…….

사십대 문턱에 들어서면/바라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기다릴 인연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안다/아니, 와 있는 인연들을 조심스레 접어 두고/보속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씨뿌리는 이십대도/가꾸는 삼십대도 아주 빠르게 흘러/거두는 사십대 이랑에 들어서면/가야 할 길이 멀지 않다는 것도 안다/방향하던 시절이나/지루하던 고비도 눈물겹게 그리안고/인생의 지도를 마감해야 한다

죽정이든 알곡이든/제 몸에서 스스로 추수하는 사십대,/사십대 들녘에 들어서면/땅바닥에 침을 뱉, 뺨아도/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안다/다시는 매달리지 않는 날이 와도/그것이 슬픔이라는 것을 안다

너의 시 <사십대>를 읽는다. 지금 곁에서 느껴지는 너……부디 잘 지내렴.

글·사진 제공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부캐’ 전성시대

유산슬·유르페우스, 카피추, 핑수의 존재감



유산슬, 카피추, 핑수! 현재 한국 미디어에서 가장 ‘핫’한 스타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선풍적인 인기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서 요즘 통하는 미디어의 화법을 읽어본다.



유재석에게 새 이름이 ‘또’ 생겼다. 1월까지 유산슬이라는 신인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 유재석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 하프를 연주하며 ‘유르페우스’로 활동한다. 이미 예술의전당 공연에도 올라 MBC <놀면 뭐하니?~유케스트라 하프> 편의 녹화를 마쳤고, 이번 ‘부캐’의 이름은 유재석과 오르페우스(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음유시인)의 합성어인 ‘유르페우스’로 정해졌다고, MBC 공식 계정에 공지됐다. 이미 국민MC라는 어엿한 별칭이 있는 유재석이 왜 유고스타(비틀스의 드러머 링고 스타에서 따온 이름), 유산슬, 유르페우스라는 낯선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일까.

유튜브식 유머의 성공 ‘유산슬’

<놀면 뭐하니>의 시청자라면 알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역할 놀이다. 전 국민이 얼굴을 다 아는 유재석이 “저는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신인 가수이고 소속사는 MBC이며 소속사 사장은 김태호 PD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방송에서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 또 다른 캐릭터가 바로 ‘부캐’이고 ‘본캐’는 유재석이다. ‘부캐’는 게임에서 원래의 자기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 계정으로 활동하는 데서 비롯된 신조어다. <놀면 뭐하니> 안에서 유재석은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을 연기하고, 신곡 <사랑의 재개발>까지 발매한 후 유산슬로 지방 행사장을



누비다가 연말에는 단독 콘서트까지 열었다. 어디 그뿐인가. 2019년 MBC 연예대상 신인상 트로피도 유산슬에게 돌아갔다. <놀면 뭐하니>를 본 적 없는 어떤 시청자는 MBC 연예대상을 보다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데뷔한 지 28년, 지상파방송 3사 시상식에서 대상 트로피를 몇 개나 거머쥔 유재석이 신인상이라고? 하지만 트로피를 받은 것은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이다. 2018년 MBC <무한도전> 폐지 후 1년 만에 돌아온 김태호 PD가 왜 공중파 방송에서 이와 같은 ‘장난’을 치는 걸까. <놀면 뭐하니>의 1회가 MBC TV가 아닌 유튜브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던 대로 해서는 유튜브를 상대로 승산이 없음을, 김태호 PD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명 연예인들의 브이로그 형식으로 시작한 <놀면 뭐하니>가 방송 초반 저조한 시청률을 보인 것과 달리 유재석이 유산슬을 연기하면서부터 시청률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면 ‘유튜브식 유머’를 지상파로 끌어온 제작자 김태호 PD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속된 역할극 ‘카피추’

이와 같은 ‘부캐’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대표적인 개그맨이 바로 추대엽, 일명 ‘카피추’다. 2002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개그 프로그램에서 귀신 같은 모창과 연예인 따라 하기로 잠깐 화제가 된 추대엽의 ‘부캐’가 바로 카피추다. 카피추는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영감을 얻은 캐릭터로 자연에 살며 돈에 관심 없다고 떠들면서 실은 속세에 찌들어 유명 노래를 표절하는 유튜브 속 인물이다. 코미디 작가인 유병재가 추대엽에게 “이런 캐릭터로 유튜브에서 콩트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서 탄생한 캐릭터다. <코미디 하우스>에서 ‘성식이 형(성시경)’ 모창을 하고, <나도 가수다>에서 가수 정엽을 패러디한 ‘천엽’으로 활동한 추대엽을 눈여겨보던 유병재는 그에게 가발을 씌우고 생활한복을 입힌 후 ‘카피추’라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산에만 살아서 속세의 유행어나 유행곡을 모른다며 손사래 치는 카피추는 남의 노래를 가사만 바꿔 부르며 “내가 만든 노래”라고 시치미를 떤다. 유튜브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그가 자연인도 아니고 산속에 살지도 않는, 개그맨 추대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속아준다. 추대엽, 아니 카피추는 카피추 채널(구독자 36만 명, 2020년 2월 20일 기준)을 운영하며 유병재의 채널(구독

자 96만 명, 2020년 2월 20일 기준)에서 ‘표절제로’라는 코너에 출연해 누가 들어도 표절이 확실한 남의 노래를 가사만 바꿔 신나게 완창한다. 그 역시 ‘유산슬’처럼 약속된 역할극이고, ‘표절제로’의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댓글창으로 “오,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카피추 형님 천재!” 등등의 댓글을 남긴다. 유튜브 시청자들까지 이 사기극에 즐거이 동참하는 것이다. ‘표절제로’ 3회에서 카피추가 부른 노래는 박상철의 <무조건>이고 노래 제목은 ‘유조건’으로 둔갑된다. 전 국민이 아는 그 노래 <무조건>의 가사를 카피추는 이렇게 개사해서 부른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 여자 만날 거야~ 나마스떼”.

기획된 펭귄 ‘펑수’

그렇다면 펑수는 어떨까. 2019년 최고 인기 캐릭터이자, 박원순 서울 시장과 함께 2020년 보신각의 종소리까지 울린 펑수는 ‘아이돌을 꿈꾸며 남극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10살 펭귄’이라는 캐릭터로 자신을 소개한다. 하지만 그 인형 탈 속에 성인 남성이 들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펑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열 살이고, EBS에서 아이돌 연습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펑수는 사실은 커다란 인형 탈 속에 누군가가 들어가 ‘펑하~’를 외치고 적재적소에 센스 넘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다. 펑수의 힐링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집 <오늘도 펑수 내일도 펑수>의 작가 소개에 펑수와 함께 이름을 올린 EBS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캐릭터인 것이다. 그 안에는 당연히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재미있게도 펑수는 사람의 ‘부캐’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본캐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의 정체는 공공숨겨야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존재다.

유산슬과 추대엽이라는 부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를 펭귄이라고 주장하는 펭귄 인형 펑수. 2020년의 대중이 열광하는 이 ‘캐릭터’들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획되고 만들어진 거대한 농담이자 우화다.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놀 건데 너희들도 같이 놀래?”라고 기획자들이 보낸 초대장을 받은 대중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는 그 놀이판에 기꺼이 올라가 함께 논다.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고 사기이고 장난이고 농담이지만, 현실에는 없는 무엇이라 더 즐겁게 속아줄 수 있다.

글 김승희 <빅이슈코리아> 편집장 사진 제공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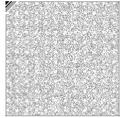
클래식 스타 탄생의 공식을 바꾸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과거 클래식 음악의 스타 공식은 이런 거였다. 콩쿠르에 우승한다, 언론이 주목한다, 그 뒤에 음반이 발매되고 공연이 연속된다... 그런데 요즘은 클래식 스타가 되는 길이 다양해졌다. 그중 하나가 인터넷 스트리밍 채널 유튜브다. 음대생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인 '또모'에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열정적이고 화려한 모습과 불행했던 뒤편길을 노출한 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금은 자신의 채널도 열어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시련을 이긴 음악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한 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다. 유전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거의 잃었다. 2살 때 유학생 부모를 따라 영국에 간 뒤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냈다. 퍼셀스쿨을 졸업하고 15세 나이로 폴란드 최고의 바이올린 콩쿠르인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공동 2위에 입상했다. 옥스퍼드와 로열 아카데미,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대학 시절에는 정경화에게 레슨을 받았다. 20대 중반부터 통증이 심해져 6년 동안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는 공백이 있었다. 1월 31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한수진 초청 리사이틀은 그녀가 유튜브 스타가 된 뒤 팬들 앞에 선 첫 공연이었다.

한수진은 공연 전 해설을 맡은 《월간 객석》 송현민 편집장과의 대화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했다. 준비운동 하는 효과로 아티스트와 곡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영국 악센트가 독특한 한수진의 영어 설명도 새로웠다.

유튜브 스타를 넘어 클래식 스타로

첫 곡인 〈모차르트 소나타 K376〉에서 한수진의 바이올린이야 여러 번 들었던 익숙한 톤이 나왔는데 놀라운 부분은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반주였다. 한국인이 한 모차르트 반주 중에서 이토록 예쁘고 단아하게 바이올린을 돋보이게 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마치 포르테피아노나 스피넛을 연주하듯 빛나는 터치에 고졸함도 깃들인 연주를 들려줬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의 제자인 박영성은 독일 아헨에서 열린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모차르트 소나타에서 한수진은 선이 되고 박영성은 점이 되어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한수진에게서는 스승인 정경화의 강철 같은 절도 위에 드리우는 자발적인 우아함이 느껴졌다. 무대 위에서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녀에겐 있었다. 과연 연주하는 모습과 음색이 모두 매력적인 연주자였다.

이어진 〈베토벤 소나타 4번〉에서 한수진의 바이올린은 골프에서 아이언을 바꾼 듯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임했다. 베토벤의 소나타는 특히 만족스러운 연주를 듣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다. 대가들의 연주에서도 단점을 잡아내기 일쑤다.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한수진의 연주에서도 여러 군데 흐름의 끊김이나 실수가 있었지만 기세를 몰고

가는 정신력은 대단했다. 좌절에 굴하지 않는 베토벤의 투쟁은 언제 들어도 송고하다.

2부의 〈포레 소나타 1번〉은 이번 공연의 백미로 꼽고 싶다. 모네의 그림처럼 사방 어느 곳 한 귀퉁이에도 많은 색깔이 덧칠돼 정보량이 많은 작품이다. 그녀는 이런 곡을 해석하며 다양한 빛을 방사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설득력이 높았다. 카라얀의 솔로리스트였던 대가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포레 연주도 중간에 부담스러운 때가 많다. 한수진의 연주에는 일관되게 곡의 끝까지 견인하는 힘이 있었다. 퍼즐을 맞추듯 거기에 일조한 박영성의 피아노도 한몫을 담당했다.

드라마 〈모래시계〉 중 '헤린의 테마'로 익숙한 〈파가니니 소나타 6번〉에서는 의욕이 앞섰던지 자유로운 루바토(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연주)를 남발했다. 이로 인해 정상 궤도를 가는 피아노와 어긋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한수진의 바이올린 음색은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연주를 듣다 보면 하나의 음을 소리 낸다기보다 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같다. 그 음이 청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른다.

이 정서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첫 앙코르인 글록의 〈멜로디〉에 그대로 이어졌다.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 플루트 연주로 나오는 애잔한 선율이다. 두 번째 앙코르인 조지 거슈윈의 〈It Ain't Necessarily So〉에서는 그녀의 끼가 녹아 있는 바이올린 소리가 스윙감을 뽐으며 귀에 착착 감겼다. 마지막 앙코르는 유튜브에서 히트한 바로 그 곡, 집시의 열정을 노래한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였다. 느린 부분의 슬픔과 한, 빠르게 질주하는 뜨거운 열정을 연속으로 뽐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들었다 났다 하는 연주는 꽤 오랜만이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이제 유튜브 스타를 넘어 클래식 스타로 연착륙하고 있었다. 벌써 협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부상과 핸디캡을 이겨낸 한수진의 성공 요인을 생각해 봤다. 표정과 태도와 실력의 삼박자가 아닐까 한다. 청중 앞에서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는 표정 속에서 나는 문득 '아 정말 칼을 갈고 나왔구나' 하고 느꼈다. 타이틀, 걸머보다 연습이 한수진의 오늘을 만들었을 거다. 앞으로 그녀의 연주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회자되리라 예상해 본다.

글 류태형_음악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조인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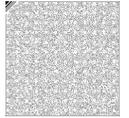
아련한 외로움과 어련한 시간, 그 사이

이와이 순지 감독의 <립반윙클의 신부>



외로움은 딸꾹질 같다.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게 불쑥, 평온한 호흡을 끊어놓는다.
그런데 누구도 제대로 멈추는 법을 모른다. 숨을 참거나, 물을 마시거나,
또 누군가가 쿵 심장이 내려앉는 걸을 쥐도 쉽게 멈추지 않는다. 원인도 해법도 모른 채 딸꾹질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을 되찾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딸꾹질을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또 언제 요상한 소리를 내며, 내 호흡을 흔들며 찾아올지 모른다.





딸꾹질 같은 외로움, 그 속

이와이 슌지 감독은 <립반윙클의 신부>(2016)를 통해 지독히 외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이 여인의 외로움은 멈추지 않는 딸꾹질처럼 숨기는 법도, 끝내는 법도 모르고 끝내 삶을 꾸역꾸역 망치고야 만다. 스스로 그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오롯한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그쳐버린 딸꾹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995년 <러브레터>가 손 편지로 오가는 아날로그 감성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20년 뒤의 <립반윙클의 신부>는 SNS 시대 속, 인간관계의 지난함과 외로움을 그린다. 거짓말로 이어가는 한 여인의 괴곡한 시간들은 얼핏 우리와 동떨어진 세상 속 이야기 같다가도, 불쑥 그 외로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맨살에 맞닿는 옷감 같은 감각을 준다. 그리고 주인공 나나미(쿠로키 하루)의 모습은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워 끄끙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된다.

1990년대 청춘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와이 슌지는 그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추억의 이름이다. 1990년대를 관통했던 <러브레터>야말로 오래전 연애편지를 찾아낸 순간처럼 깊고 아련한 각각의 추억과 맞닿은 영화였다. 당시 이와이 슌지 감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의 정서와 아주 오래된 복고적 감성을 맞붙여 새로운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출해 냈다. 그리고 1990년대 그의 영화는 많은 청춘의 마음을 때론 벅차게, 때론 설레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립반윙클의 신부>는 이와이 슌지의 감성 영화를 기다려온 사람들을 무척 설레게 만들었지만, 관객의 기대를 크게 배신하는 영화다. 이와이 슌지는 확 달라진 세계관과 시선으로 관객의 기대를 비튼다. 그래서 간혹 영화의 이야기는 화면과 정서가 충돌하면서 경중대는 순간을 맞이한다. 쿠로키 하루는 손쉽게 이용당하고, 매번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나나미를 현재로 끌어들이며 관객을 설득한다. 도통 그 속내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끝내 미워할 수 없는 주인공 아무로(아야노 고)는 살짝 어리숙하지만 또 살짝 비열해 보이는 아야노 고의 얼굴과 제법 잘 어울린다.

까끌까끌한 손을 잡다

영화의 도입부 나나미는 빨간 우체통 옆에서 SNS로 맺어진 남자를 기다린다. 1990년대 이와이 슌지 영화의 주요한 상징인 우체통과 휴

대폰을 손에 든 여주인공을 한 화면에 담아내며, SNS 시대에 문자 메시지도 손 편지처럼 주요한 소통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카메라는 늘 숨죽여 사는 주인공처럼 숨을 멈춘 듯 요동이 없지만, 그 시선은 꽤 냉정하다. 거짓말과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거래하는 냉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담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이 슌지 감독은 그 냉정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내민 손, 껴안은 사람의 체온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끝내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에 갇힌 SNS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과 달리, 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다.

이와이 슌지는 스스로의 작품을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와이 월드'의 화이트를 담당하는 작품이 잔잔하고 예뻐던 <러브레터>와 <4월 이야기>라면, 어둡고 사회 비판적인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블랙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립반윙클의 신부>는 얼핏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그 경계가 불분명해 보인다. 영화는 밝았다 어두웠다, 우울한 순간과 발랄한 순간을 반복하며 그 결을 달리한다. 격정적인 장면은 없지만, 관객의 심리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 파도치듯 밀물과 썰물 위를 떠다니며 외로움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마지막 장면, 아무로는 말짱해진 얼굴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나나미에게 재활용 가구들을 모아다 준다. 말짱한 재활용품과 함께 집 안에 남은 나나미 역시 버림받았다가 다시 재활용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지만, 지금의 나나미에게 꼭 필요한 가구들처럼 나나미 역시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되살아났다. 자존감을 잃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나나미의 모습은 간지러운 목구멍처럼 불편했다. 결국 모든 통증을 극복하고 오롯한 한 사람으로 되살아난 나나미의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초연한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어 어렵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다.

<립반윙클의 신부>(2016)

감독 이와이 슌지

출연 쿠로키 하루(미나가와 나나미 역), 아야노 고(아무로 유키마스 역)

코코(사토나카 마사히로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SAC World Premier Series XI

LUCIA DI LAMMERMOOR

예술의전당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2020. 3. 12. | 목 |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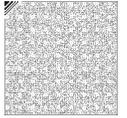
지휘 에벨리노 피도 Evelino Pidò
연출 스티븐 카르 Stephen Carr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Symphony Orchestra
합창 그란데오페라합창단 Grande Opera Chorus

Cast
루치아 제시카 프랫 Jessica Pratt
에드기르도 정호윤 Ho-Yoon Chung
엔리코 재커리 넬슨 Zachary Nelson
라이몬도 진승현 Attila Jun
아르투로 김범진 Beomjin Kim
알리사 박혜연 Hye Yeon Park
노르민노 박용명 Yongmyeong Park

가격 R석 15만원 | S석 12만원 | A석 9만원
B석 6만원 | C석 3만원

문의 및 예매 www.sac.or.kr 02-580-1300

주최 예술의전당 
후원 예술의전당 후원회



WEB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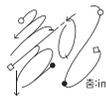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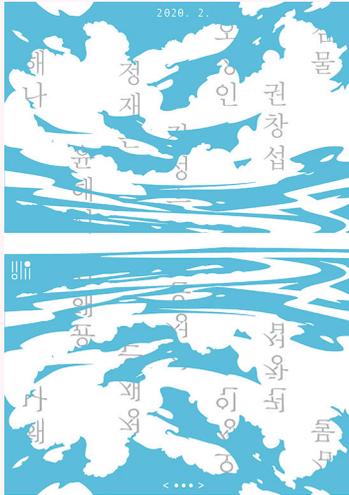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세대와 톨레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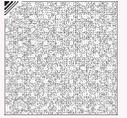


〈쓰다〉 26호 포스터

최근 발행된 인문 잡지 《한편》 1호 '세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탈코르셋 운동이 의미화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그럴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발화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가 운동에서 터져 나오는 서사로부터 자기 자신의 경험을 곧장 환기해 버린 데 있었다. 청소년기에 또래 문화에서 배제되는 일이 민감한 문제임을 이해하고, 주된 압력에 저항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일수록 꾸밈을 금지당했던 자신들의 교실 속에서 꾸밈은 곧 자유를 상징하고, 꾸민 이들이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떠올렸다.” (이민경, 〈1020 탈코르셋 세대〉)

지금의 1020 세대에겐 화장이 '자유'가 아닌 '노동'이라는 점을 기성세대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대목에서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어린 여성을 이해하는 데 해석이 필요한 나이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 역시 화장이 자유를 상징하던 시기에 10대와 20대를 보냈다. 그래서인지 1020 세대 여성들이 쇼트커트를 한 자기 모습을 인증하거나 화장품을 버리는 사진을 SNS로 마주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여성성으로 규정된 하나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것을 과격하게 드러내는, 조금은 단순하고 어린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세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그들의 행위가 지닌 가치를 낮추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부끄러웠다.

지난 〈쓰다〉 26호에 실린 성해나 소설가의 〈Ok, boomer〉는 세대 갈등을 다룬다.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며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영(young)”하다는 칭찬을 듣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활동하는 밴드 멤버들을 만나며 겪는 미묘한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아들과 그 애의 동료들에게 건넨 첫인사를 고르며 현관으로 다가갔다.

어서 와요.

악수를 건네려 막 손을 내밀 때,

화장실 어디예요?

앞서 집 안으로 들어온 녀석이 내 말을 똑 잘랐다. 머쓱하게 손을 거둔 화장실을 가리켰다. 뒤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를 두고 웃는 건지, 화장실로 달려가는 녀석을 두고 웃는 건지 잘 가늠할 수 없었다.

성해나, <Ok, boomer> 부분

밴드 멤버들과의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첫 만남부터 주인공은 이 무리에게 마음이 상한다. 아들 석희는 29세로 곧 서른에 접어든다. 그리고 아들의 동료들은 모두 아들보다도 어리다. 그들은 1999년생인 20대 초반이다. 아들 석희는 어린 멤버들과 어울리기 위해 매 순간 전전긍긍하지만, 주인공의 눈에 이 20대들은 예의 없고, 음악 같지도 않은 걸 음악이라고 우기며, 아무 때나 낱깢대는 시답잖은 놈들일 뿐이다. 주인공에게 그들이 말하는 20대의 신념이란 그저 “싸가지 없는” 반항에 불과하다. 다만, 처음부터 그가 “플레랑스”를 포기했던 건 아니다. 주인공 또한 ‘어른’의 사회생활을 거치며 자연스레 기성세대의 자리로 편입됐을 것이다. 관용은 이해에서 비롯되는데, 애초 주인공과 99년생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한다.

내 주변에도 벼지테리언이 몇 있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감이었다. 나보다 다섯 살 많은 교감은 당뇨를 앓았고 마흔부터 고기를 끊었다. (...중략...) 아들은 트위터에서 공장식 축산과 동물 실험에 대한 트윗을 보고 채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밴드 멤버들은 자기보다 더 철저한 벼지테리언이라고.

성해나, <Ok, boomer> 부분

한 세대가 공유하는 가치를 다른 세대가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고기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상상하기 힘든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윤리적인 이유로 자기 식생활마저 바꾸면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만은 끝내 반(反)유교적인 저 밀레니얼 세대가 불쾌하기만 하다. 밴드 멤버들도 기분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주인공은, “뭐 어찌됐나 존중해 줘야지” 정도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영(young)”한 세계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멋진 어른으로 인정받길 바라는 모순적 인물일 뿐이다.

거주지, 성별, 종교, 소득, 직업, 학력 등 한 세대 안에서도 서로를 영원한 타인으로 만들 무수한 조건이 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화해는 한쪽에서 관용을 베풀다고, 자존심을 조금 죽인다고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관용과 배려에는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 세대간 톨레랑스는 그렇게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글 김잔디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들려주는 어떤 방법

〈움직임의 시〉 아쿠 카도고 세미나·워크숍



박
영
진
2019.11.16

아쿠 카도고 워크숍 모습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신촌문화발전소에서 진행된 〈움직임의 시〉는 코레오포엠(choreopoem)이라는 낯선 형식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다. 코레오포엠은 미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엔토자케 상게(Ntozake Shange)가 처음 고안한 것으로, 작품 《무지개가 났을 때 자살을 생각한 흑인 소녀들을 위하여》(For Colored Girls Who Have Considered Suicide When Rainbow is Enuf)(1976, 이하 《무지개》)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코레오포엠은 전통적인 서사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시와 춤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작품의 형태다. 이번 〈움직임의 시〉에서는 미국·호주·한국 등 전 세계에 걸쳐 연출가이자 안무가·공연예술 교육가로 활동 중인 아쿠 카도고(Aku Kadogo)를 초청해, 엔토자케 상게의 기념비적인 작품 《무지개》를 중심으로 흑인 여성 서사의 대안적 흐름과 그 핵심적 창작 방식을 나눴다.

첫날, 세미나

첫날인 16일은 아쿠의 작업과 코레오포엠의 맥락을 함께 짚어 보는 세미나 시간이었다. 코레오포엠은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 어떻게 배제돼 왔고 코레오포엠이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연극은 언제나 백인·남성의 것이었고, 그들의 서사가 연극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지개》는 전통적인 연극의 언어가 아닌 흑인 여성만의 방식-그들의 말과 소리와 몸-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 혁신적인 시도였다.

《무지개》는 1970년대의 'Black Arts Movement', 베트남전 시기를 통과한 세대의 정치적 경험, 그리고 로레인



한스베리 등 여성 극작가들의 존재에 빛지고 있다. 아쿠는 이런 시대상과 극작가들의 계보를 언급하며, 앞선 여성들이 있었기에 상계가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상계가 있었기에 오늘날 다른 여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는 “계보를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흔히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말할 때, 동시대의 맥락 안에서만 이야기하기 쉽다. 그러나 나를 만드는 흐름은 종적인 동시에 횡적으로 존재한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들이 우리의 후손을 만들기도 할 것이다. 미투(#METOO) 이후의 시대를 보면서 성장하는 지금의 10대들이 만들어 낼 작품과 그들의 새로운 감각이 궁금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또 브로드웨이에서 호주의 사막으로 이어지는 아쿠의 여정을 들으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각자의 경험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도 생각하게 됐다. 한 사람 안에서 시간의 흐름, 그 사람의 정체성, 사회 분위기, 경험 등이 모두 교차한다는 감각은 놀라웠다. 결코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동일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이야기는 가치 있을 수 있다. 1970년대에 상계와 아쿠가 말하고자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흑인 여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질의응답 시간에 아쿠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어쨌든 살아 있고, 괴로운 날이 있겠지만 결국 살아갈 것이고, 그러므로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평생을 그런 태도로 살아온 어떤 열정,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는 감각을, 60대의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자주 지치고 부단히 좌절하게 되는 상황을 견디는 힘을 얻은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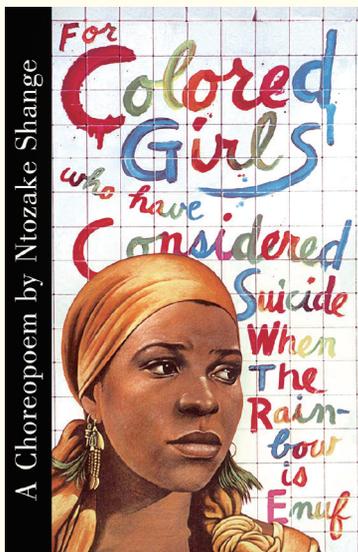
둘째 날, 워크숍

다음 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코레오포엠의 작은 부분을 체험해 보았다. 코레오포엠의 기본 정신은 음악과 움직임과 언어가 모두 어우러지는 것이므로, 소리와 몸으로 각자의 감각을 표현해 보는 작업을 했다. 스물다섯 명 정도의 참가자가 둘러서서 각자의 소리와 몸짓을 따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다섯 명씩 다섯 개의 소그룹을 만들어 그룹마다 짧은 작품을 만들어보았다.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거기에 감정을 더했다. 아쿠는 즉흥을 강조했는데, 즉흥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 의미 있음을 말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같은 조가 되어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은 대단히 낯선 감각이었고,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몸으로 만든 움직임에 감정을 더하고, 즉흥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몸과 내 몸이 만나 생각하지 못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다. 다섯 개의 조가 만들어 내는 장면은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각자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 집중하고 그들을 감각하는 경험은 같았을 것이라고 느꼈다.

이틀간의 워크숍을 통해 코레오포엠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만난 것은 코레오포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만남을 통해 새롭고 낯선 형식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코레오포엠이 그전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흑인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누군가가 만들어 어떤 새로운 예술이 이제까지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린다.

글 장지영_드라마투르기.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많다. july2413@naver.com 사진 제공 신춘문화발전소



책 《무지개가 뒤틀릴 때 자살을 생각한 흑인 소녀들을 위하여》 표지

Q 당신은 누구입니까?

조형준 지하 연습실과 옥탑 작업실, 그리고 그 사이 3층 집을 오가며 사는 조형준입니다. 한국무용을 그만둔 이후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손민선 씨와 뭉(Mu:p)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며 공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민선 건축과를 졸업한 이후에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조형준 씨와 한 작업을 계기로 공연을 함께 만들고 있는 손민선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3년 전에 그만두었고, 작년에 건축사 자격증을 뒀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웃음)

Q 여기는 어디입니까?

손민선 이곳은 서울의 수많은 옥탑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프탑'이에요. (웃음) 보통 우리는 천장이 있는 공간만 보며 사는데, 이곳은 천장이 없어서 더욱 특별해요. 이렇게 트여 있으니,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죠.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도 들어서 공연을 준비하거나 작업이 안 풀릴 때는 자체 감금해서 작업이 풀릴 때까지 먹고 자고 해요. (웃음)

조형준 그리고 이곳은 구조나 개념을 만들 때,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해요. 보통 해프닝은 퍼포밍하는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그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비운다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를 한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곳에서 무언가가 벌어질지 기대하는 거죠.

Q 여기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조형준 글썄요. 저희 작업에는 전형적인 형태의 춤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웃음) 물론 저 스스로는 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제겐 안무가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서, 공간에서 작업이 출발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는 공간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서 작업하거나 어떠한 균열이 생겼을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기생하면서 그 균열을 확대하려고 해요. 춤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의존하고 기생하면서 무언가에 얽힌 채 작업에 담기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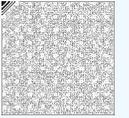
손민선 이곳에서는 머릿속으로 이렇게저렇게 조합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조합이 된다면,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전부다 여러 방향으로 조합해 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희 공연에서는 춤과 공간, 구성, 배치, 관객, 출연자 등 모든 요소를 한 공간에 풀어놓고 동시에 굴러가도록 했을 때 비로소 완성된 공연이라는 느낌이 들죠.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뭉(Mu:p)은 안무가 조형준과 건축가 손민선의 협업을 바탕으로 움직임과 공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한다. 주로 특정 장소의 맥락에 신체 및 사물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과 안무, 현상에 대해 실험하며, 비선형적인 연합과 화제적인 교차를 통해 작업 장르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춤+여기

균열 사이에 기생하여 더 큰 균열을 내는 춤

문 | 손민선 & 조형준



무프탐. © Kenn. 김병구

03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축제 | 예술교육 | 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2	3 ● 전시 (일상다반사)(~8.16) ● 뮤지컬 <오늘 하루>(~3.15)	4 ● 뮤지컬 갈라 콘서트 <Beyond the Best> ● 2020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3.20)
9 ● 제2회 비엔나 바로크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서울	10	11 ● 연극 <The 가구>(~3.22)
16 ● 연극 <행오버-서울>(~3.31)	17 ● 문래예술공장 정기 대관 행사 <진이 랜드>(~3.26) ● 연극 <오델로-oh the yellow>(~4.21) ● 전시 <DAGISM 다기즘>(~3.22)	18 ● 이고르 모이세예프 러시아 국립무용단 초청 공연(~3.19)
23	24 ● 연극 <아빠, 아버지 그리고 아빠>(~3.29)	25  ● Petite concert 작은 음악회 이 마에스트리 ● 뮤지컬 <로빈>(~5.17)
30 ● The Class 브랜드 최 & 송영민	31 ● 연극 <이야기하는 요즘것들-코뿔소>(~4.5) ● 어린이 연극 <북극곰예술여행>(~3.31) ● 바흐 탄생 335주년 기념 임재성 <바흐 무반주 전곡> 첼로 리사이틀 ● 전시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3.31)	



Thu	Fri	Sat	Su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감각의 섬>(~4.27) ● 전시 <간송: 매일 아침처럼>(~3.1) ● 연극 <환상동화>(~3.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이정진: VOICE>(~3.5) ● 연극 <애쉬 (Ash)>(~3.1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Dimension Collection>(~3.6) ● <Jazz at emu Part 46> ● 2019 창작산실 연극 <대신 목자>(~3.1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아트>(~5.17) ● 2019 창작산실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3.15) ● 뮤지컬 <데미안>(~4.26) ● 뮤지컬 <Via Air Mail>(~3.15) ● 어린이 연극 <아빠 얼굴 예쁘네요>(~3.2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팽 탄생 210주년-해피버스데이 쇼팽 ● 로시니 오페라 콘체르탄테 <세비아의 이발사>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무용극 <눈(N.O.T)>(~3.13) ● 연극 <노웨이 투데이(Noway Today)>(~3.22) ● 전시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최후진술>(~5.31) ● 박자희 <적벽가>(~3.1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6.26) ● 그랜드마스터클래스 2020(~3.15) ● 술술클래스: 더 콘서트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래예술공장 정기 대관 행사 <크리에이티브 랩 유랑 뮤지컬 공연 발표>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날아가 버린 새>(~3.2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희진 첼로 독주회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4.26) ● 가족음악회 <악기야놀자>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펜티 사말라티: Beyond the wind>(~3.2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목요일 베토벤의 시간 '17'20 김다솔 Piano 	2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로타순지 피아노 독주회 ●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96회 정기연주회 ● 전시 <Espace RAYNAUD展>(~3.28) ● 어린이 뮤지컬 <내친구 유관순>(~3.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바로티를 위하여 ● 놀이 뮤지컬 <프렌즈 시즌2: 신비의 손전등>(~3.29) ● 뮤지컬 <미스트>(~3.29) ● 이원국발레단 <말하는 발레 동물의 사육제>(~3.29) ● 전시 <겨울동물원>(~3.29)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시 <감각의 섬>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작가 3인 그룹전 <감각의 섬>을 개최한다. 올해 개최되는 <감각의 섬>은 “주어진 환경에서 작가 개인의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감각적 섬’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는 의미를 담았다. 선택한 매체와 작업에 담긴 메시지가 서로 다른 이선근(회화), 이우주(회화), 황성원(사진)의 작품이 신한갤러리 내의 분할된 공간에서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일시 ~4월 27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일·공휴일 휴관)
장소 신한갤러리 역삼
관람료 무료
문의 02-423-6680



전시 <일상다반사>

화정박물관은 2020년 상반기 <일상다반사(Every day Life)>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화정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청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회화와 공예품을 선보인다.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 동시에 현재 우리들의 일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기간 3월 3일(화)~8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휴관)
장소 화정박물관
관람료 1만 원
문의 02-2075-0114



전시 <이정진: VOICE>

시적 울림을 주는 특유의 명상적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 사진예술의 지평을 넓힌 국제적인 사진가 이정진의 개인전이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순회 회고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최초 공개되는 대형 시리즈 2019 등 총 30여 점의 근작을 선보인다.

일시 ~3월 5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휴관)
장소 PKM 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34-9467



2019 창작산실 연극 <대신 목자>

아이를 해치고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와, 그 늑대를 돌봐온 사육사, 그리고 늑대 탈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나 극의 서사는 주인공 유재와 유재를 만든 어머니의 낙박한 삶, 그 안의 인물들이 제각기 갖고 있는 죄의식을 의미한다.

일시 3월 6일(금)~15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7시 30분
 3월 15일(일) 오후 3시(1회 공연)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2만 원
문의 02-794-0923



연극 <아트>

15년간 끈끈한 우정을 지켜온 세 친구 마크·세르주·이반. 어느 날 세르주가 산 그림 한 점. 150×120cm쯤의 하얀 캔버스. 흰색 바탕에 흰색 줄이 쳐진 하얀 그림. 이 그림 한 점으로 인해 세 친구는 지난 15년간 서로에게 품어만 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상황은 점차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게 된다.

일시 3월 7일(토)~5월 17일(일)
 평일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일·공휴일 오후 2시, 6시(월 공연 없음)
장소 백암아트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1577-3363



전시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 경관과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한 구찌(Gucci)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세계적인 큐레이터 미리암 벤 살라(Myriam Ben Salah)만의 독보적인 심미관으로 완성한 이번 전시는,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유머나 마법 같은 현실주의로 가득 찬 시각 이미지를 통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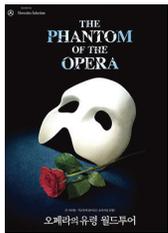
일시 3월 12일(목)~6월 15일(월)
 화·수·금·일 오전 10시~오후 6시
 목·토 오전 10시~오후 7시(매주 월 휴관)
장소 대림미술관
관람료 성인(20세 이상) 8천 원, 학생(8~19세) 2천 원, 어린이(3~7세) 1천 원
문의 02-720-0667



창작무용극 <낯(N.O.T)>

<낯>은 '거기 아무도 없어요(N.O.T-No One There)?'의 약자로,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라는 질문은 물리적 존재에 대한 물음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진심을 알아줄 무언가를 향한 질문이다. 세대, 성,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등 이 시대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국적 춤사위에 맞춰 음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일시 3월 12일(목)~13일(금) 오후 8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2-399-1766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내한 공연

국내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7년 만에 오리지널 내한 공연을 펼친다. 토니상 7개 부문을 비롯해 전 세계 메이저 어워즈 70여 개를 석권했으며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명작 <오페라의 유령>은 이번 내한 공연에서 오리지널의 진수를 고스란히 전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의 환상적 라이브 연주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최상의 캐스트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3월 14일(토)~6월 26일(금)
평일 오후 8시 | 주말 및 공휴일 2시, 7시(월 공연 없음)
4월 15일(수)·4월 30일(목)·5월 5일(화) 오후 2시, 7시
4월 19일(일)·5월 1일(금)·5월 3일(일)·
5월 10일(일) 오후 3시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관람료 VIP석 17만 원, R석 14만 원,
S석 11만 원, A석 9만 원, B석 6만 원
문의 1577-3363



전시 <DAGISM(다기즘)>

나란히 서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다채로운 화풍의 작가 열네 명이 모였다. 다기는 열네 개의 시선과 재능을 한 그릇에 담아낸 전시가 얼마나 다기(多技)하며 다기(多岐)한지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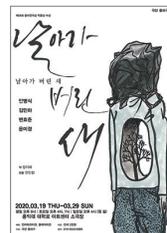
일시 3월 17일(화)~22일(일)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
일 오전 11시~오후 4시(매주 월 휴관)
장소 비움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70-4227-0222



이고르 모이세예프 러시아 국립무용단 초청 공연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안무가로 칭송 받는 이고르 모이세예프는 볼쇼이 극장 발레 학교를 졸업한 뒤 1939년까지 볼쇼이 극장에서 일하던 중 하나둘씩 자신이 안무한 작품을 한두 편씩 선보이기 시작했다. 1954년 <스파르타쿠스> 출연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안무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민속무용의 재료를 발레와 현대무용의 어법으로 새롭게 각색해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해낸 새롭고도 특별한 공연이다.

일시 3월 18일(수)~1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22만원, R석 16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4만원
문의 02-6292-9368, 9370



연극 <나아가 버린 새>

제56회 동아연극상 수상작. 비행 청소년과 여느 청소년의 이야기, 나아가 이 땅에 오롯이 '나'로 존재하고 싶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일시 3월 19일(목)~29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4시, 7시
일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관람료 2만 원
문의 010-3543-5890



싱어송라이터뮤지컬 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친구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레인보우쇼. 무대 위에서만 펼쳐지는 관람형 공연이 아닌 배우가 객석으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관객과 하나 되는 참여형 뮤지컬이다.

일시 3월 21일(토)~4월 26일(일)
토·일·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평일 공연 없음)
장소 에림당아트홀
관람료 3만 원
문의 1544-3901



뮤지컬 <신과 함께>

웹툰과 영화로 유명한 <신과 함께>가 뮤지컬로 관객을 찾아가는다. 이승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다가 서른아홉 나이에 죽은 김자홍과 그를 변호하는 저승의 국선 변호사 진기한, 저승차사 강림 등의 험난한 여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일시 3월 25일(수)~4월 1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2시, 6시(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523-0986



서초문화재단 Petite concert 작은 음악회

이 마에스트리

I MAESTRI(이 마에스트리)는 대한민국의 정상급 남성 성악가들이 2006년에 창단한 연주 단체로, 단원 모두 세계 주요 도시의 오페라극장과 국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하는 세 연주자는 이 마에스트리의 정예 멤버로 각각 테너·바리톤·베이스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앙상블 연주와는 다른 감미로운 선율로 관객의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채워줄 것이다.

일시 3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관람료 7천 원
문의 02-3477-2805



전시 <Espace RAYNAUD>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Jean Pierre Raynaud)의 개인전. 1960년대부터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레이노의 대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새로운 작업 <발사>는 원형 표적판에 산탄총을 발사해서 총알 자국을 만들어낸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예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일시 ~3월 28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일·월·공휴일 휴관)
장소 갤러리 508
관람료 무료
문의 02-6448-5087



히로타 순지 피아노 독주회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헝가리·오스트리아·독일·루마니아·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히로타 순지의 피아노 독주회가 관객을 찾아가는다.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독주와 실내악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인 히로타 순지의 피아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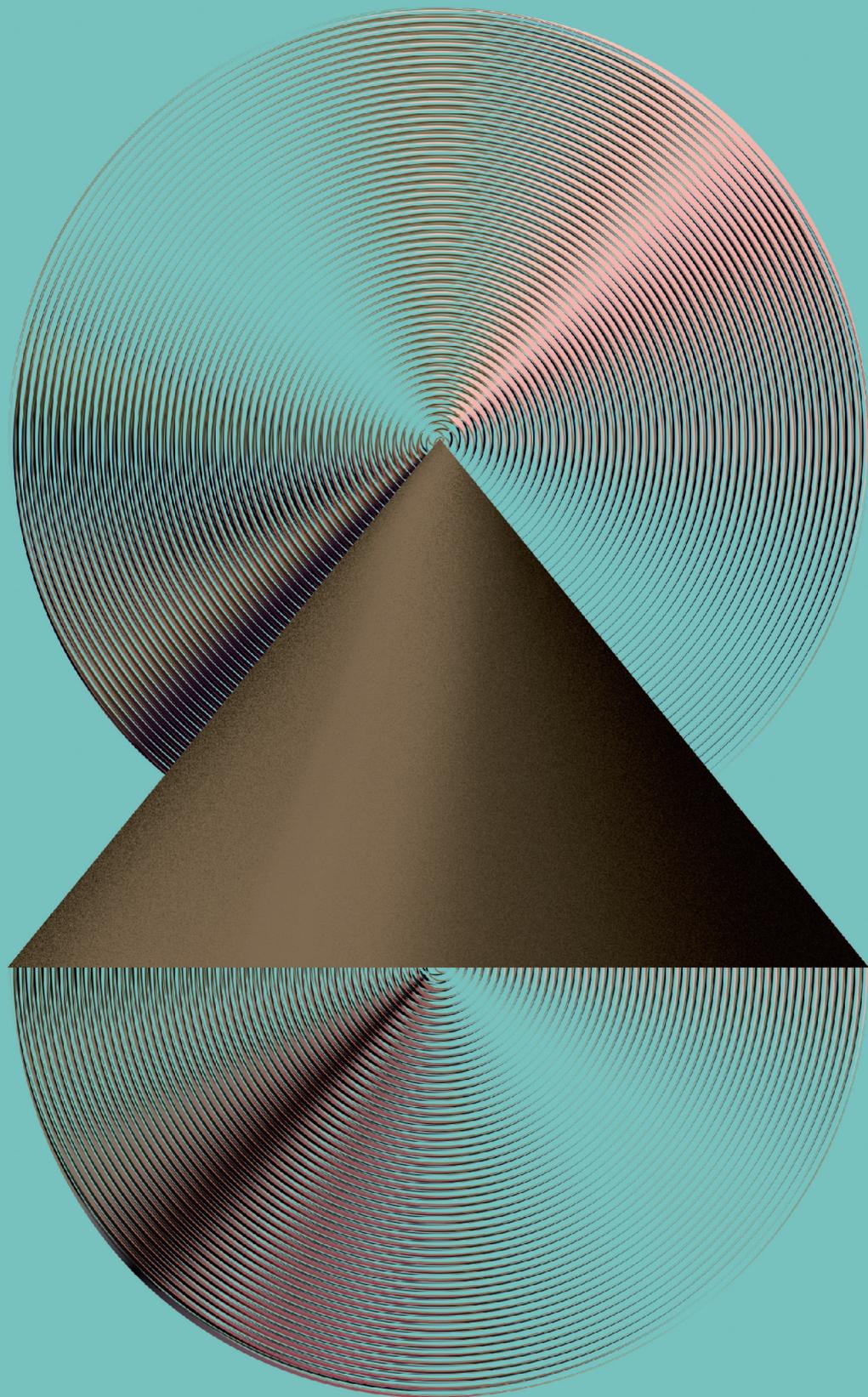
일시 3월 28일(토)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관람료 2만 원
문의 02-586-0945



어린이 뮤지컬 <내 친구 유관순>

지난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공연한 작품 <내 친구 유관순>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부터 이화학당 재학 시절,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이야기까지 담는다. 작품은 열사의 친구 남동순 할머니의 회고 형식을 빌려 감동적으로 전개된다.

일시 ~3월 28일(토) 토·일 오후 2시
장소 경복궁아트홀
관람료 3만 원
문의 02-735-0507



2
0
2
0

서울
예술
지원

2차
공모안내

2020

3. 2-3. 20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magazine.sfac.or.kr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2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신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성수동 책마루에서 뵈네요.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60대 모델 김철두님과 예전이나 지금이나 멋진 배우 정동환님 기사를 반갑게 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 두 분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이번달 내용과 사진이 모두 훌륭해서 잠깐의 휴식 동안 알차게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아기자기한 문화공간들을 방문,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문화+서울]을 통해 알게 된 공연과 장소 팀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 (<http://magazine.sfac.or.kr>)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현정원 님(서울시 광진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성수동 책마루에서 뵈네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60대 모델 김철두님과 예전이나 지금이나 멋진 배우 정동환님 기사를 반갑게 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 두 분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이번 달 내용과 사진이 모두 훌륭해서 잠깐의 휴식 동안 알차게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아기자기한 문화공간들을 방문,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문화+서울]을 통해 알게 된 공연과 장소 팀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도 기대됩니다.

편집 후기

하루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사이좋게 지내요.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진짜 봄이 오기를.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귀한 인연을 만나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게 해준
[문화+서울]과 5년 만의 재회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은
계획된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김태희 객원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량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함께 막아요!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수칙



손 씻기(청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기침 예절

기침은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고!



마스크 착용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필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의는
☎ **관할 보건소 / 1339 / 120**

※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 방문 전에 위 번호로 전화 주세요.